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인생들이 삶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로 수행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여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과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 보옵시며 주께 특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역대하 6:39)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2호 2012년 9월 2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이슬람원리주의 정권 득세, 반미정서 확산

미 언론, '이슬람 비하 영상물은 표면적 이유일 뿐' 보도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욕하는 내용의 미국영화로 촉발된 이슬람권의 분노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9.11 테러 11년째를 맞는 지난 11일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반미시위가 종교 집회가 있는 금요일(14일)을 거치며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퍼졌다. 또한 시위가 확산되면서 애초 미국 공관에 한정됐던 시위대의 공격대상도 독일과 영국 등 일부 서방국 공관과 군부대, 학교, 식당 등으로까지 범위가 커졌다. 알지라 방송은 미국영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할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은 물론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아시아 이슬람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으며 특히 독일 대사관은 시위대가 지른 불로 화염에 휩싸이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영상물(Innocence of Muslims)이 유튜브를 통해 촉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동에서 세속주의 정부들 무너진 뒤, 지연되는 민주주의 정착에 따른 좌절로 인해 극단적 원리주의가 득세하면서 확산된 반미 정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역할 즉 대선을 맞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이 시험대로 오르게 됐다.

9.11테러 11주년인 지난 11일 리비아 벤가지의 미국 영사관이 무장한 시위대에 가습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했다. 공격의 발단은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14분짜리 영상물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부근 세리토스에 사는 콥틱 신자인 나콜라 배슬리 나콜라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물은 유튜브를 통해 아랍권에서 사는 콥틱 신자인 나콜라 배슬리 나콜라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퍼졌다. 아랍권에서는 이 영상물이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며 격분하고 있다. 리비아를 비롯해 이집트 튀니지 예멘 등지에서도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아랍권의 반미 정서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리비아 주재 미국대사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을 제공한 유튜브 영상물 '무슬림의 순진함'의 한 장면

짜리 영화의 일부이다. 지난 7월 초 처음 공개됐을 때는 별다른 문제를 조래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랍어 더빙 버전이 유튜브에 다시 실리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아랍권의 분노를 야기한 부분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묘사다. 영상물에서 무함마드는 여러 여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아동성을 승인한 변태성욕자이고 무책임한 가장이자 피 묻은 칼을 든 도살자로 묘사된다. 서구의 문화 창작물에 대해 아랍권이 격분한 것은 1989년 영국의

소설가 살만 루슈디의 소설 '악마의 시'가 발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루슈디를 살해하라며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리비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예멘 등 아랍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지만, 특히 극심했던 곳은 리비아였다. 리비아에서 사태가 커진 것은 리비아 정부의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비아에서는 수십 년간 독재를 해온 무아마르 카다피의 세속주의 정권이 지난해 혁명으로 몰락하고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부족 간 갈등으로 아직 권력의 중심점이 이슬람 원리주의 쪽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졌고 사건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 아랍권에서 반미주의가 확산된 것은 다소 예견된 측면이 있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랍국가 정부들이 혁명을 통해 세속주의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로 급격하게 정세변화를 겪고 있는 데다 현지 무군이 자존심 강한 아랍인들을 잇달아 자극하고 있어서다.

(3면으로 계속)

"선교적 교회" 이끌어가는 원동력

UMC, 급변하는 세상...효과적인 목회 방향설정 위한 신조어 소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술사용의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첫 번째 단어는 "초연결(hyper connectivity)"이라는 단어다. 초연결이 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몸이 어디에 있는지 - 직장에 있는지, 휴가 중 집에 있는지, 식당에 있는지, 침대에 누워 있는지, 심지어 예배처소에 있는지 - 항상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점점 더 그들의 개인생활과 회사생활이 통합돼 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통신기기가 더 많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잘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초연결된 전문가들은 현재 전체 직장인구 중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수년 안에 40%까지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웨저 시대"라는 단어다. "말레니어들은 이전 세대들처럼 직장과 가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직장은 생활의 일부이지, 생활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 균형을 이룬다는 생각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의 맞지 않는 것이다."

웨저(weisure)는 '일(work)'과 '레저(leisure)'를 합성한 신조어다. 발달한 무선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물론, 백

초연결(hyperconnectivity): 몸이 어디 있든 항상 접속

웨저(weisure): 일과 레저 구분 안하고 곧바로 일해

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고 등산을 하다가도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지칭한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목회 사역에 아주 중대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이트 세대는 세속과 종교적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자랐다.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했고, 나머지 6일은 직장과 가정 생활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했다. 예배 때 세속 문화로부터 나온 음악은 환영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는 오직 신성한 음악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의 결과,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 됐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이런 구분에 개의치 않는다. 그들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은 일주일 내내 그들의 직장생활과 시간 사용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미디어 가려보는 지혜를 가르치라!



7면

투고 칼럼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9면

본사방문
이재근 목사(주사랑선교회)



16면

선교사와의 만남 (4)
보이즈프로젝트 대표 지용주 목사



21세기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제1차 한인 목회자·선교사 국제 컨퍼런스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지인 미시간의 Calvin 신학교와 Western 신학교에서 저명한 신학교수들과 훌륭한 목회자들을 모시고 "건강한 교회와 설교, 건강한 교회와 리더십,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 양성, 건강한 교회와 세계선교, 건강한 교회와 예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제 1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한국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국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의 미국유학을 위한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담당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하는 시간도 있으오니 한인 선교사와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Western 신대원총장
Dr. Timothy Brown



Calvin 신대원 총장
Dr. Julius Medenblik



Puritan Reformed 신대원 총장
Dr. Joel R. Beeke



Calvin 신대원신약학교수
Dr. Jeff Weima



Calvin 세계선교연구원장
Dr. John Kim

- 일 시: 2012년 10월 29일(월) - 11월 1일(목) 4박 5일
- 장 소: 미국 미시간 Western 신학교, Calvin 신학교, Puritan Reformed 신학교
- 강 사: Dr. Tim Brown(Western 신대원총장), Rev. Julius Medenblik(Calvin 신대원총장), Dr. Joel Beeke(Puritan 신대원 총장), Dr. Jeff Weima(Calvin 신대원교수) 외 저명한 목회자

- 참가대상: 해외 한인선교사, 이민교회 목회자, 한국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 참 가 비: 해외 선교사 \$300 (부부 \$500)/ 이민목회자 \$400 (부부 \$700)/ 한국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500 (부부 \$900)
- 등록마감: 2012년 9월 30일
- 등 록: (한국)외환은행 구좌 611-020269-502 (김연택, 칼빈세계선교연구원) 미국) Check payable to "The Holland Korean Church"
- 참가신청: 참가자 이름(한영), 교회(선교기관) 주소, Email & 전화번호, 이메일로 신청
- 특기사항 1. 미시간, Western Seminary, Calvin Seminary, Puritan Reformed Seminary, Hope College, Calvin College 를 방문하고 목회자 유학 및 학위과정에 관한 상담시간이 있습니다. 2. 시카고의 Billy Graham Center, Wheaton College,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Moody Church, Moody 신학교, Trinity University (Deerfield) 를 방문합니다. 3. 세계적인 기독교 출판사 Baker와 Eerdmans 출판사 서점에서 원서구입을 안내합니다. 4. 유학생 담당자를 모시고 선교사 자녀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 컨퍼런스후의 일정 안내 및 홀란드한인교회에서 잔류를 안내합니다. 6. 출도착: 미시간 Grand Rapids International Airport 공항, 도착, 10.29.(월), 출발, 11월 2일(금) 7. 문의: 칼빈세계선교연구원 김연택박사 (전화 616-795-8047, Email: johnkimsma@gmail.com)

- 주 최: Calvin Institute of World Mission, The Holland Korean Church
- 협 찬: Western Theological Seminary, Calvin Theological Seminary, Puritan Reformed Seminary, CRC Holland Classis, RCA Holland Classis, Hope College, Calvin College, Geneva RCA Conference, Holland City Council, The First Reformed Church, Bethany Christian Reformed Church, 미주크리스천신문, 유럽크리스천신문, 오렌지 생명의 말씀사, 칼빈세계선교연구원, 홀란드한인교회

칼빈 세계 선교 연구원
Calvin Institute of World Mission

원장 김 연 택 박사
President, Rev. John Kim, Ph.D.



시론

네, 멀고도 가까운 사람, 가깝고도 먼 사람



양중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자신들의 결혼 50주년 파티를 잘 마치고 돌아온 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스낵을 하기로 하였다.

식빵을 구워 토스트와 함께 티를 마시기로 하고 남편이 먼저 들어가 새로 사온 식빵봉지를 열어 끝부분 조각(the heel)을 꺼내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지난 50년 동안 식빵 끝 조각을 늘 내게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남편이 심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여보, 식빵의 끝 조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가 가깝고도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살을 맞대고 살지만 대화가 없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 관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읽다보면 누가 정말 탕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통 생각하는 둘째 아들, 아버지로 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가 물론 탕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둘째 아들은 멀리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집에 와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 반면에 맏아들은 아버지와 한 지붕아래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나,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일 때에도 맏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 동생에 대한 미움과 저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맏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는 가깝고도 먼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오히려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없이 교회의 지붕 아래 머물러 있다면, 밭에 나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던 맏아들과 같이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가깝고도 먼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눅15:20).

미디어 가려보는 지혜를 가르치라!

카리스마, 크리스천 가정의 미디어 테러리즘 홍수 대처방법 제시

얼마전 콜로라도와 위스콘신에서의 총격 대량 살상사건은 미디어에 드러난 폭력성에 노출된 사회가 얼마나 모방범죄에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폭력영화를 보고 영화에 묘사된 그대로 사람들 살해하게 되는 상관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영화나 TV 또는 뮤직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바로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거의 미디어에 드러난 폭력이나 선정성을 모방하게 되고,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십대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더 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미디어를 규제하고 제어하는 차원에서 크리스천들은 소극적으로 방어하지 말고, 거의 테러 수준에 가까운 선정적 미디어 범람에서 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보수적인 크리스천 매거진 카리스마(Charisma)지는 크리스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미디어로부터 자유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Protecting Your Family From Media's Sexual Terrorism).

빌보드 차트 탑 10위권 안에 드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또 폭력적인 장면들이 단순히 극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영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런 뮤직비디오는 비디오 대여점이나 케이블방송 등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어 선정,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미디어에 드러난 선정성 때문에 십대들이 이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등 인격이나 행동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과거 연구들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최근 다투마스 대학교는 16세 이전의 십대들이 영화를 통해 노출된 선정성(MSE, movie sexual expo-



지먼트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허리우드 영화 관계자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소통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 즉 세속적 세계관의 정의와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어떠한 세계관으로 다가오는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는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사춘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부모나 다른 롤 모델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야말로 폭력적, 선정적 미디어에게 그대로 노출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창조성 갖도록 지도 선정적 폭력적 미디어는 보지 않게 해야

sure)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다툼스 대학교는 2005년에 발표된 연구(Gunasekera, Chapman, & Campbell, 2005)의 결과로부터 설문 조사를 시작한다. "1983년부터 2003년에 개봉된 영화들 중 70%는 만년 지 얼마 안 되는 이성의 성에 관한 묘사나 적나라한 행위가 드러난다. 그리고 90%는 피임도 없이, 89%는 아무런 결과 없이 성 행위만 드러난다."

2005년 연구는 "이러한 대중 영화들을 보는 사춘기 십대들은 성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비현실적이며 충동적이라는 사실이다"고 경고한다.

결국 다투마스 대학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000명 이상의 사춘기 십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즉 10-14세 십대들이 본 영화 50개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미 결과는 예측된 대로, 16세 이전의 성 경험을 한 십대들은 성을 나눈 대상자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충동적으로 같이 자는 관계라고 응답했다.

또한 십대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심각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들은 심지어 영화에서 본 장면들을 현실에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모방 심리가 더욱 왕성했다.

결국 허리우드식 사랑과 성은 한 마디로 비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결과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성 행위인데도, 이를 따라하는 십대들에게는 접촉으로 인한 질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만을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춘기 십대들은 실제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화에서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투마스 대학의 연구 결과는 적절한 대안을 결론으로 제시

한다. 즉 사춘기 십대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선정성(MSE)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멀어질 것을 충고한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으면, 성에 대한 안전하지 않은 개념이나 활동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크리스천 미디어 전문가들 역시 다투마스 대학교의 결론에 동의한다. 이들은 수년전부터 크리스천 가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미디어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충고하고 있다:

1. 자녀들에게 미디어를 가려볼 줄 알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미디어를 가려볼 줄 알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고, 해석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창조해야 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분석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영화 제작과 스토리텔링의 매개체가 무

2. 자녀들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 받은 피조물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감독이나 작가로 부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창조성은 자녀들로 하여금 미디어를 분석,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따라서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 선하고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3. 미디어 영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선정적, 폭력적 내용을 가진 영화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충분할 정도의 죄와 비도덕적인 것들을 본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 Fax: (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플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미국=기독교' 중동지역 크리스천들 불안가중

미 언론, '이슬람 비하 영상물은 표면적 이유일 뿐' 보도

〈1면에서 계속〉
올해 초 시위로 40명의 사망자를 낸 아프가니스탄 코란 조각 사태가 대표적이다.
수십 년간 세속주의 정부의 억압을 받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은 작년 각국의 혁명을 주도하면서 세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일어난 '자스민혁명' 이전만 해도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한 곳은 혁명을 통해 신정이 들어선 이란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미국과 서방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했던 아랍권 세속주의 정부들이 잇달아 무너지자 대안으로 원리주의가 힘을 얻게 됐다.
튀니지의 경우 작년 하반기 치러진 총선에서 온건 이슬람주의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섰다. 예멘은 극단



립의 순진함)가 갖는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극단주의적 무슬림 세력들이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 국제적으로 공권력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가 당분간 지속하고 더 나아가 악화할 수도 있다고 비판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이 무슬림 선지자 모하메드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화 상영을 허용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아랍의 봄 이후 무슬림 내 자리한 반미 정서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를라호마 대학교 중동지역 연구를 맡고 있는 조수아 랜디스 교수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동지역 독재자들이 미국과 친밀한 관

온건 이슬람주의정부, 과격이슬람세력 영향력 확대통로 마련 경제해결력 부족...경제 나빠지면 다시 군부쿠데타 가능성도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멘은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본거지가 된 상황이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주의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총선에서도 원리주의 정당들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아랍에서 원리주의가 다시 주목 받는 이유는 그간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세속주의 정권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해석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쿠데타 등으로 정권을 잡은 세속주의 정권은 경제개발을 내세우고 친서방적인 외교, 경제 정책을 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혁명 전 튀니지의 실업률은 15%에 달했고 예멘의 실업률은 약 13%까지 치솟았다. 또한 이집트 튀니지 등 친미 세속주의 정권이 서방의 개입을 과도하게 용인하자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온 것도 반미 정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의 정부가 곧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속주의 정부 때보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는 "세속주의 정권을 대체해 이슬람주의 정권이 들어섰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다시 군부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중동정세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아랍권에서의 반미 정서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잇달아 중동정책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집트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슬람주의 정권과 군부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이집트 국민들의 반미 정서에 불을 붙였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이집트 등지의 이슬람주의 정권들이 과격 이슬람주의와 반미주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구심이 커지

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WINEP)의 패트릭 클로슨 연구장도 "온건 이슬람주의 정부가 더 과격한 이슬람 세력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에서 반미 시위는 확산될 조짐이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은 지난 12일 대규모 시위에 이어 14일에도 문제가 된 영상물을 비판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알제리 튀니지 예멘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 예멘에서는 시위가 대가 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한 명이 사망했다. 시위는 아시아지역 이슬람 국가로 번지고 있다.
중동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한다. 한마디로, 해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이 영화(무슬

림의 순진함)가 갖는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극단주의적 무슬림 세력들이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 국제적으로 공권력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가 당분간 지속하고 더 나아가 악화할 수도 있다고 비판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이 무슬림 선지자 모하메드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화 상영을 허용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아랍의 봄 이후 무슬림 내 자리한 반미 정서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를라호마 대학교 중동지역 연구를 맡고 있는 조수아 랜디스 교수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동지역 독재자들이 미국과 친밀한 관

새소망 칼럼

힘을 바로 써야 참된 행복을 누린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독오당은 "사람답게 살려면 몸을 구부리라"고 하였다. 성경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빌2:4)고 하였고 솔로몬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의 축복이 따른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재물을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목적으로 삼기는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재물임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겸손한 자는 재물뿐만 아니라 영예도 얻게 된다(잠29:23).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약4:10).

유명한 흑인 교육자 부커 워싱턴 박사가 알라바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그 지역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그가 워싱턴 박사인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려니 해서 멈춰 세우고 몇 달러 줄 테니 장작이나 패달라고 요청했다.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녀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주었다. 일이 다 끝나 그가 돌아간 후, 그 집 흑인녀가 그를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백배사죄했다. 그러자 부커 워싱턴 총장은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하고 위로를 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비결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노벨상에 버금가는 막사이사이상이 있다. 막사이사이상은 필리핀의 대통령인 막사이사이(1907-1957)를 기념하여 제정한 상으로 아시아에서는 노벨상만큼 권위 있는 상이다.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필리핀 국민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지방 순례를 하던 때에 차를 타고 가던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길가에 고장 난 트럭 앞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는 갑자기 비서관에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하더니 그 고장 난 트럭바퀴 밑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얼굴과 옷에 시커먼 기름을 묻힌 막사이사이가 나왔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트럭운전자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 직업은 본래 트럭운전자였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겸손이다. 진정한 힘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쓸 때 보석처럼 빛이 난다. 그럴 때 힘은 더 강하고 권위가 있다. 참으로 강한 자는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강자의 미덕이다. 막사이사이의 그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가가 국민을 위해 정치가로서의 권위를 버릴 때 우리의 사회질서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크신 능력을 죄와 사망의 노예 된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을 대신하여 정죄 받고 매 맞고 침 뱀을 받고 온갖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온유와 겸손을 실천해 보이셨다. 당장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악한 무리들, 악의세력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지만 온유와 겸손, 진정한 사랑과 대속의 심자가를 지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힘 세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힘과 그분의 참된 인류 구원 능력을 발견한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 과시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아짐의 방법으로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과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성해 보아야겠다. 나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힘을 바로 써야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따라서 안방까지 그런 세상의 온전하지 못한 죄악들을 들여 올 필요가 없다. 영화들이나 미디어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 폭력, 거친 언어 그리고 반 기독교적 가치들로 가득 찬 미디어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1면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주일에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연결돼 있다. 타인은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그들의 질문과

아이디어와 초청에 응답 내지는 반응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한다. 회중은 그들이 세상을 향해 궁극적인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을 제공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장하게 된다. 즉 그들의 일상적 삶이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은혜라는 영원한 메시지와 연결될 때 회중은 성장하는 것이다.
즉 교회 사역은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압도되기도는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과 행동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계를 생성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담임 조요훈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세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I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MA Courses(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스트레스’라는 것

어른이고 아이들도 할 것 없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는 말을 한다. 생각해보면 요즘 속에서 도시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또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심장도 나빠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또 위장병도 생기고 심지어 암까지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심지어 의도도 하고 별별 노력을 다 해보지만 스트레스를 해소

하려고 하다가 그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황성주박사가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동안은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피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황성주 박사는 스트레스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이다. 나쁜 스트레스는 피해야 하겠지만 좋은 스트레스는 양념처럼 어느 정도 있어야 인생의 활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거기에 양념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맛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곤란하다. 그러나 양념을 적당히 넣으면 음식이 맛을 내듯이 우리 삶속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또 어떤 스트레스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 제목도 없고 의욕도 없다. 마치 태엽이 풀린 시

계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요트 경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를 몰고 가는 경기인데 초보자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바람에 휩쓸려 넘어진다. 그러나 노련한 사람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불수록 더 좋단다. 왜? 그 바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일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 시는 다윗이 암살로에게 쫓겨났을 때 썼다. 암살로들은 누구인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암살로에게 모반을 당하고 다윗이 궁중에서 빠져나와 맨발로 도망치고 있다. 믿었던 참모들마저 아들

편에 붙는가 하면 백성들마저 자기 에 등을 돌리는 것 같다.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린 것 같다. 다윗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이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큰일 났습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절망하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를 어려움에 빠뜨리겠는가? 라는 엉뚱한 생각을 넣어준다. 이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은 증거다. 너는 틀렸다 포기해버려! 그런 치명적인 생각을 슬그머니 넣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 기도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할 용기마저 잃게 되었을 때 그때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 43편에 나온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난 중에 있는가?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이다. 왜 내게 문제를 주시는가? 주님께 더 가까이오라는 신호인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혼자 지고 믿음하며 고통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란다. 그 염려와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푸/ 른/ 초/ 장

변영익 목사
(벤엘장로교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섬긴다는 말 안에는 첫째로 바르게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해도 그 섬김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분쟁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분쟁은 바르게 믿지 못해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진 교회이며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전통성이 없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교회는 일시적으로 파견된 지도자들이 가르치다가 때가 되면 또 떠나 버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 대한 애정도, 존경심도, 크게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마25:42에 보면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갠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까”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대답은 매우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수평적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됩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교회는 유대인들과 현재의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중 여러 가지 부딪침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당시에는 노예라는 낙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이 병사는 누구에게 속한 군인이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말은 나는 예수의 사도로 인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성령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루스라에서는 돌에 맞아 온 몸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며,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에 걸려 고생한 많은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할지언정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자 갈라디아서 6:6-18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먼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교회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각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대단히 열심히 잘 못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섬긴다는 말은 무조건 열심히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없는 초신자들이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히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 지도자와 함께 하는 자 바울은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기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자기를 지도하는 자와 늘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본문(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워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는 역시 섬김이 없는 문제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수직적 섬김이 아니라 수평적 섬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25:41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무서운 저주를 받을 자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섬기는 방법은 자기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 하나님을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거짓 지도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지도자 바울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본문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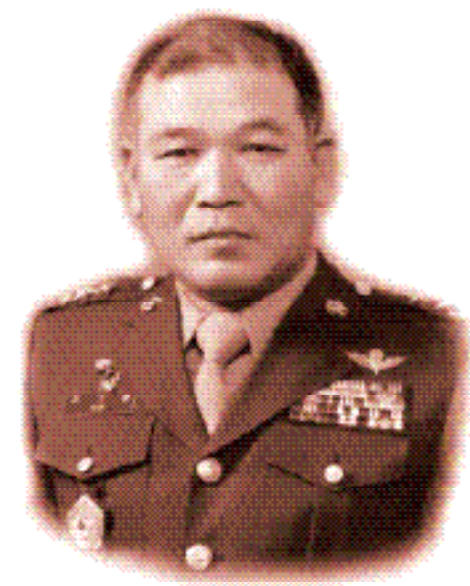
다. 그러므로 마24:13에서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3.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본문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이 말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메섹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메섹의 흔적이 없이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은 흔적이 있어야 하고 눈물을 흘려본 눈물의 흔적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흔적이 없이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지도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32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 안내

해군 중앙교회 장로, 전 해병대 부사령관, 예비역 해병소장
전 한국 해병대 부사령관이시며 기적과 축복의 삶을 체험한 믿음의 장군, 김기홍 장로님을 초청하여 제32차 미주 추계 간증성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0월 18일 ~ 12월 9일



- 약 력**
- 1964 해군 사관학교 18기 졸업, 해병소위 임관
 - 1966/1-68/1 월남전 참전(해병 청봉부대) 월남 짝뚱동 작전지휘 (중위) 전 중대원 일계급 특진 (신화를 남긴 해병의 전설적 명예장조) 충무무공훈장, 월남 업송 무공훈장 수훈, 한국/미국 대통령 부대표장 진해 가덕도 침투작전 소탕작전 수행
 - 1970/10 해병 제2사단 5연대장(대령)
 - 1984/8-86/1 해병 제2훈련 단장(준장)
 - 1990/1-91/1 해병대 부사령관(소장)
 - 1991/1-93/12 - 연세대학교 연한신학대학원 졸업 - 곡원대학교 교수 - 국내외 3700여회 성회 인도

제32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 일정

일 시	교 회	담임목사	지역
10/18(목) ~ 10/21(주일)	시온연합감리교회	구진모	CA
10/25(목) ~ 10/28(주일)	주님의빛교회	주역로	CA
11/ 2(금) ~ 11/ 4(주일)	갈릴리 은혜교회	구본철	CA
11/ 8(목) ~ 11/11(주일)	갈보리 선교교회	심상은	CA
11/15(목) ~ 11/18(주일)	에니아임 장로교회	신은석	CA
11/22(목) ~ 11/25(주일)	호산나교회	라계영	CA
11/30(금) ~ 12/ 2(주일)	타이드 워러 한인 침례교회	조낙현	VA
12/ 7(금) ~ 12/ 9(주일)	풍성한교회	윤병남	MD

강 사 : 김기홍 장로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는 (02)842-3313로 연락 바랍니다.
● 웹사이트 : www.kimkihong.com
▶ ●서울 : 김기홍 장로(02)842-3313 ● 셀폰 (010)8929-4333 ● 팩스(02)848-3315 ● 미주 (551)655-4224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5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요즘 한국 가수 사이가 발표한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BC 모닝뉴스 '투데이쇼'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미국의 여러 TV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방청객들까지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며 '강남스타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도 '강남스타일'로 들쭉들쭉합니다. LA 할리우드에서도 인종과 국적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강남스타일'을 열창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본 사람이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남한국민이 겨우 5천만인데 우리 인구의 4배가 넘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통해 '강남스타일'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표현해 예술적으로 논할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그 노래와 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상함이나 절제된 아름다움보다는 자신을 깨뜨려 내려놓음으로 남을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습니 다. 그리고 복잡함보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강남스타일'을 가지고 서두를 꺼낸 이유는 '문화선교'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체제 그리고 문화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선교방법이 결코 같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계속해서 아이들의 생활 훈련과 영적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의 나이와 학년 그리고 지적능력 과 신체발달심리가 고려된 커리큘럼과 체험적 신앙을 길러줄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스(Source)가 없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총격요법도 필요하고 단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Follow Up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계속해서 아이들의 생활 훈련과 영적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의 나이와 학년 그리고 지적능력 과 신체발달심리가 고려된 커리큘럼과 체험적 신앙을 길러줄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스(Source)가 없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총격요법으로는 평생 신앙 좌우 할 수 없어 눈높이 맞춘 단순하고 반복적인 접근 효과적

선교대회가 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대회마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텐트 메이킹(Tent Making)에 관한 관심사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킹은 갈수록 경제적 난관 때문에 줄어가는 선교지원으로 인하여 자비량선교 또는 전문인선교 등 선교사 스스로 자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선교의 고정관념을 깨고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 과감하게 바꾸어야 되는 부분들이 연구되어왔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오던 구제나 의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전 선교지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전략은 아직 미흡하지만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하다는 의미는 무엇보다 선교대상이 되

주입식교육이나 세뇌교육이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미국, 한국 같은 풍요로운 나라에서 미디어와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한 환경에서 Physical World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e-World(사이버)에서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현과 도전을 주기 위해 단기선교 등을 시행하는데 선교현장에 가서는 아이들이 자극도 받고 감동도 받아 곧 선교사로 나갈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문화적 자극과 더 큰 충격이 오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격요법으로 아이들의 평생 신앙을 좌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무엇인가는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무엇인가 했다는 데서 프로그램은 끝나고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귀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차세대운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형 박사를 초청하여 자녀교육 세미나 및 주일학교교사 세미나를 9월28일(금)부터 10월1일(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갖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개발된 교재를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의 책임이 결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더 많은 시간을 학교와 가정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식전달의 역할 외에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신앙교육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부모들이 살기 위해 바쁘고 또 아이를 모르고 교육방법을 몰라 자녀교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을 위해 자녀교육 세미나를 겸하여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그리고 부모 자신을 위해

서라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꼭 참석하여 교회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교육선교와 문화선교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 서 '강남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오늘날 문화를 포스트모더니즘문화라고 합니다. 50-70세대가 살던 모던이즘은 산업화시대로서 개성보다는 군중이 중시되던 시대요, 하나의 리더에 의해 군중이 따라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40세대는 어떤 리더가 일어나 그들을 통합하고 확립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개인적인 선택을 중시하고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흠여지는 세대를 아우르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이슈가 그들을 연결하고 한 데 묶어 그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즐기다가 그 문화가 싫어지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흠여지는 것이 포스트모던이즘의 특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호흡과도 같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려면 먼저 그들의 문화적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당회원이 되는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공동체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안목이 무엇인지요? 이민교회들이 같은 지체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다툼과 싸움으로 화평이 깨지기 쉬운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요?
-나성에서 김 장로

A: 여기에 두 가지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안목은 첫째로 균형 감각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자전거 타기의 핵심은 Balance 즉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전거 타기처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균형이 잘 잡힌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전통과 개혁의 균형, 은혜와 진리, 법과 사랑의 균형 등입니다. 교회의 담임목회자나 당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로컬을 보면서도 글로벌을 보고 글로벌을 보면서도 로컬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의 화평을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체들끼리의 "화평"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수가 많고 적은

균형 잘 잡고 비본질적 문제로 화평 깨지 말라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공동체의 생명입니다.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와서 앉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새 가족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세리토스에 이사 오려고 집을 찾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부동산업자에게 집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이 괜찮은 집이 찾아지자 나중에는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조용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도 하나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화평한 교회로 교회의 분위기를 세우려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생명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로마교회는 로마서 14장을 보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돌로 갈라져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수준이 낮은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의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adiaphora, matter of indifference)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단적인 교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간직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견차이를 믿는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생명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에 찬송가만 부를 것이냐 아니면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매장해야 하니 화장해도 되느냐? 침례냐 약식세례냐? 등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essentials)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좀 달라도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750.00~~
\$150.00

스트롱 원어코드

NEW 성구사전

개역개정판

360,000점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로고스 STRONG COD

히브리어·헬라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개역개정판

로고스 NEW 성경사전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기간,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어려운 단어를 구별마다 대표어 명기함, 단어에 스트롱코드를 붙여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현재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라오 푸안(LAO PHUAN)



라오스에 살고 있는 라오푸안족은 98,000 명이 넘으며 이웃국가인 태국에는 9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두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는 라오푸안족은 모두 푸안(Phuan)어를 사용하며, 푸안어는 디악(Diak)언어군의 치앙사엥(Chiang Saeng) 방언에 속한다. 태국에서는 "라오푸안"이라는 말이 "이주한 라오인"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라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라오푸안

족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정체성을 가진 라오족과는 다른 별개의 사회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진 종족집단이다.

라오푸안족은 자신들이 타이족의 후예라고 주장한다. 13세기경 타이족은 중국 남서부 지방에서 계속되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태국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이들은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 많은 민족과 문화를 정복했다. 1827년에서 1980년까지 많은 라오푸안인들이 전쟁포로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그러나 라오푸안족의 주류는 여전히 라오스에 남아 있다. 전쟁과 식민이 반복되는 역사

로 라오푸안족 사회는 거대한 사회적 격변을 겪어왔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라오푸안족 사람들은 푸른 계곡의 기름진 땅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라오푸안족은 농사를 위해 관계용법을 사용하고 계단식 논에서 농사짓는다. 또한 일부는 산악지역에서 화전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일부 사람들은 농사보다는 대장장이와 같은 다른 독특한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무역로와 가까운 마을의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러하다. 이 지역의 새로운 도로건설 프로젝트로 라오푸안족이 시장에 쉽게 갈 수 있게 됐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부들이 도소매 상인, 기술 직공, 공무원 등의 새로운 직업을 갖기도 한다.

라오푸안족은 한 계곡에 하나의 작은 마을 왕국을 이루어 생활한다. 각기 마을은 "차오 무옹(chao

muong)"이나 군주의 통제를 받으며, 평민들은 이들에게 조세의 의무를 갖는다. 마을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마을 어른의 입회하에 마을의 수장에 의해 행해진다. 한 마을 안에 서로 좀 더 부유한 라오푸안인들은 튼튼한 티크나무나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집에서 산다. 이러한 가옥에는 땅에서 일정한 높이를 띄워 두꺼운 판자로 된 마루청과 기와지붕이 있다. 가난한 라오푸안인들은 대나무 뼈대 구조에 흙바닥에 초가지붕을 얹은 낮은 집에서 생활한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마을 사람들을 단합을 상징하고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절이다.

라오푸안족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사회적 단위는 가정이다. 이들의 사회구조가 가부장적이기는 하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균형이 잡혀있고 화목하다. 성에 따른 노동의 구분은 거의 없다. 남성과 여성 모두 논밭을 갈고 낚시질을 하

고 요리하고 아기를 돌보고 빨래를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평화로운 편이며 생활이 검소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라오푸안족의 생활에는 "공직을 세우는(merit-making)" 의식, 승려의 임명식, 결혼, 집들이 등과 같은 행사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태국의 방콕에서는 영혼들을 숭배하고 기념하는 "쌀자루 의식(ceremony of the rice packet)"이라고 불리는 큰 행사가 매해 행해진다.

신앙

태국의 라오푸안족 사람들이 주로 불교도인 반면, 라오스의 라오푸안족 사람들은 전통민족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통적 정령숭배 사상에 불교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영혼과 물체를 숭배하는 것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들은 "수호

혼(guardian spirits)"과 "지역 혼(locality spirits)"의 존재를 믿으며 이것들은 사회 속의 다양한 것들과 동일시된다. 이들은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잘 달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오푸안족의 언어로 제공되는 기독교 자원은 전혀 없다. 두 개의 선교단체가 태국의 라오푸안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지만 라오스의 라오푸안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현재 없다. 라오푸안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매춘행위를 하거나 자녀들로 매춘 행위를 하게 한다. 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사랑, 수용을 경험하게 되도록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사랑을 이들에게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흑인교계, 대선 투표거부운동 전개

미국의 일부 흑인 기독교 목회자들이 오는 11월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물론교 신자 및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모두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선에 신자들이 투표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다.



일부 흑인 목회자들의 움직임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약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오바마는 지난 2008년 선거에서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9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뉴욕사회교회협의회 회장이며 흑인 크리스천문화센터 담임 A.R. 버나드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지지를 발표했을 때 우리는 그가 이 나라를 이끄는 방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소재 흑인 기독교 단체인 권익신장 네트워크의 자말 해리스 브라이언트 목사는 "미 흑인 교계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목회자들이 대선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문제가 문제"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롬니 후보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물론교 신자라는 사실이 일부 기독교 신자에게 약재로 작용하고 있다.

화남 무슬림 공격에 미대사 사망

[쿠키 지구촌] 9·11테러 11주년인 11일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이슬람을 모독했다며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무장시위대가 미 대사관과 영사관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미 대사 등 국무부 관리 4명이 숨지고 성조기가 불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아랍의 봄' 이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하며, 잠재된 반미 정서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무아마르 카다피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지난해 축출된 이후 이들 국가에서 미국 외교공관이 공격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리비아 제2의 도시 벤가지에서 총으로 무장한 시위대 수십명이 공중으로 총을 쏘며 미 영사관에 불려들었으며 일부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 공격으로 영사관 안에 있던 미국 관리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영사관은 로켓추진 수류탄 공격도 받았다.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영사관이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외교공관에 대한 이번 공격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979년 이란 과격파 학생들이 테헤란의 미 대사관에 난입한 이란 인질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2000여명이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대사관 안뜰을 가로질러 미국 국기를 끌어내렸고 벽 위에서 성조기를 훼손했다. 또 미국 국기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짓밟았다. 시위대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한 영화가 예언자 무하마드(마호메트)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국기 대신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하마드가 신의 메신저"라는 글귀가 쓰인 검은 색 깃발을 달았다.

루시디는 "이슬람, 성전을 미화했다" 주장

반(反) 이슬람 영화로 서방측에 대한 이슬람권의 분노 표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 이슬람이 성전(聖戰)을 미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 출신 영국 소설가인 살만 루시디(65)는 17일 인도 방송 CNN-IBN과 한 인터뷰에서 성전 개념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루시디는 "성전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방향, 목표, 자존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에서 제작된 반이슬람 영화로 이슬람권이 서방측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방송은 인도의 일부 남부지역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반미시위가 일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시디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며 이러한 자유에는 특정 종교를 분노케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여전히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나는 종교가 특권을 요구하는 행위에 신물이 난다"면서 "(특정 종교가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종교가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면 어떠한 비판도 이겨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도 서부 뭍마이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루시디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그는 1981년 소설 '한밤의 아이들'로 부커상을 받으면서 소설가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 특히 1988년 또 다른 소설 '악마의 시'를 발표한 이후 이슬람과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는 이란측으로부터 줄곧 살해위험을 받고 있다.

밤 첫 방송되었던 'XY그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해 추후 방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XY그녀'는 남자이지만 여자의 몸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 17명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다. 이 때문에 방송 전부터 교계를 중심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에스더기도운동과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연구사연대 등 237개 교계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부추기는 KBS 반대 국민연함'(공동대표 이윤희 교수)은 지난 2일 '트랜스젠더와 동성애가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확산되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첫 방송 직후에는 시청자 게시판에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시청자 요구가 빗발쳤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서방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영화의 접근 차단 조치를 촉구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17일 하메네이가 "서방의 지도자들은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개종 거부로 사형위기 이란인 목사 석방

[미션라이프] 무슬림에게 전도한 혐의로 체포돼 이슬람 개종을 거부하면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이란의 유세프 나다르카니(35) 목사가 8일 석방됐다고 미국의 한 매체가 11일 '미국 법과 정의 센터'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다르카니 목사는 석방 후 "나를 위해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2009년 10월13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슬람을 가르치라는 이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체포됐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고, 올해 초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 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들이 논평을 내며 이란 정부를 압박했다. 사형은 늦춰졌고 결국 재심을 통해 석방됐다. 그는 가정교회네트워크의 리더이자 이란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회원이다.

KBS N, 결국 'XY그녀' 방송 보류

성전환자 토크쇼 'XY그녀'의 방송이 보류됐다. 교계 및 학부모 단체들은 안도하면서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KBS의 케이블방송 채널인 KBS N(사장 김영국)은 12일 오후 홈페이지(kbsn.co.kr)를 통해 "지난 6일

밤 첫 방송되었던 'XY그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해 추후 방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XY그녀'는 남자이지만 여자의 몸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 17명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다. 이 때문에 방송 전부터 교계를 중심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에스더기도운동과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연구사연대 등 237개 교계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부추기는 KBS 반대 국민연함'(공동대표 이윤희 교수)은 지난 2일 '트랜스젠더와 동성애가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확산되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첫 방송 직후에는 시청자 게시판에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시청자 요구가 빗발쳤다.

이란, 서방에 반이슬람 영화' 차단 촉구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서방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영화의 접근 차단 조치를 촉구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17일 하메네이가 "서방의 지도자들은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메네이는 또 일부 국가가 나치와 관련한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표현의 자유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P 통신이 전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외무장관은 이와 별도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문제의 영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은 이슬람권 반미시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될 때까지는 미국 백악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리비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 영상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란에서는 최근 문제의 영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 차례 진행됐지만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무함마드 레자 라히미 제1부통령은 이날 반관영 매체 뉴스통신에 "이란 정부는 전 세계 15억 무슬림을 모욕한 이 영화 제작자를 끝까지 추적해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영화 제작자를 어떻게 추적하고 처벌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청빙

The Eastern Korean Presbytery,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는 아래와 같이 사무총장(Executive Presbyter)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나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섬기신 분
2. 미국에서 3년 이상 교육을 받고 학위 취득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에 능숙하신 분
4.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 미국거주에 결여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1. 본 교단 소정의 P.I.F.
2. 한글, 영문 이력서
3. 사무총장 직책에 대한 소견 및 신앙고백서
4. 사진(여권) 1매
5. 추천서 2통

- **서류제출 마감** : 2012년 10월 15일까지
- **서류제출처** : Rev. Paul C. Yang (청빙위원장)
124 Scarlet Oak Lane Paramus, NJ 07652

- **문의사항** : Tel) 201-843-2222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청빙위원회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신청 자격 | Qualification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장학금액 | Scholarship Amount

월당 \$1,000 per person

신청마감 | Application Deadline

2012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2

신청 서류 |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할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서류 보내실곳 |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d.
Kalamazoo, MI 49008

문의사항 |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평신도 선교운동본부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T/269-372-4262 / hmhrview@sbcglobal.net

투고칼럼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New Spirit Movement 상임대표)



종교와 폭력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동안 세계는 성전(聖戰)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폭력들이 난무했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그냥 넘겨 버렸다. 지금 아랍권에서 불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의 항거 역시 항의의 표시라기보다는 심각한 폭력이다.

폭력의 발단은 셈 바실이라는 감독과 나콜라 바슬리 나쿨라라는 제작된 "순진한 무슬림"이란 영화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둘은 실은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이 영화에서 무슬림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무하마드를 무시하며 무슬림을 욕 보였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금 중동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들의 난동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이미 리비아주재 미대사의 죽음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나아가 독일, 영국 등 서방 세계의 공판들까지 파괴

하고 있다. 물론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선지자라고 일컫는 무하마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응분의 항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들의 행동은 단순한 항의나 어떤 주장을 표현하는 단계를 넘어 성난 폭도들의 심각한 폭거임을 보여 주고 있다. 과연 무하마드가 참 선지자라면 저들의 폭력을 용인하고 기뻐하며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인가?

종교란 거룩한 신(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랑을 베풀고 용서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죄와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배제하셨다. 그러기에 지금도 기독교는 안티 크리스트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지만 결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기도할 뿐이며 단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바른 삶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할 뿐이다(롬 12:21).

하지만 무슬림들은 한 편의 영화가 무슬림과 무하마드를 욕 보였다고 폭력적 항거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파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아랍권 전역에서 벌이고 있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신앙이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청난 착각이다. 영화 제작자에게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것으로 치면 예수만큼 무시를 당한 분도 없을 것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특히 그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재판을 받고, 목욕을 당하고, 침 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도, 심지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으니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겹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들어 치니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에 망한다"(마26:52)며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시며 "내가 열 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마26:63)시며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향해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눅23:34)라고 기도하시며 저들의 사죄를 구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무슬림들 역시 진정 자신들이 종교인이라면 최소한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 더구나 아무 연구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은 죄악이다. 이슬람권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본사방문

찬양선교음악회 준비하는 이재근 목사



본사를 방문한 이재근 목사

찬양선교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근 목사(주사랑선교교회)가 17일 본사를 방문해 찬양선교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들려주며 찬양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주사랑선교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크고 음악회나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지요. 교회가 작지만 늘 일을 벌이는 편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체험하곤 하지요."

이목사는 2년에 한번씩 4번의 찬양선교음악회를 열었다. 이 찬양제를 통해 얻어진 수익은 북한을 비롯해 회교권과 교도소, 오지에 있는 선교사와 그 자녀들을 도왔다. 그러나 금번 음악회는 조금 달랐다. "지금까지 선교음악회를 열다보니 자연히 찬양을 하시는 분들과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삶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적은 사례비들로 가정을 이끌고 가야 하니 가족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어떤 음악인은 2집(Job) 3집 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찬양사역자, 찬양팀을 위한 선교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재근 목사가 찬양사역자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대 상 22장-25장에 나타난 찬양대의 모습과 시편150:6, 이사야43:21에 말씀 때문이었다. 그는 찬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됐고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다.

이목사 자신도 2년 전까지 미주내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찬양팀 가운데 일부는 친목과 교제를 목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찬양팀의 본뜻이 어긋남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찬양팀이나 교회 찬양대, 그 어떤 모임이라도 찬양은 맘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지요. 잘 아는 대로 예배의 4대 요소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금이지요. 어떤 기도, 헌금도 올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도도 응답으로 내려오고 헌금도 올라갔다 축복으로

내려오지요. 오직 온전하게 올려 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은 찬양이지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데 오늘날 예배에서 찬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유행가성 가스펠곡이 불리고 있지요. 40세 미만은 찬송가 곡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라고 찬송이 줄어들고 가스펠이 예배를 차지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이재근 목사는 금번 음악회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찬송가 보급과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꿈은 찬양 사역자들이나, 지휘자, 찬양팀들이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요즘 뜨고 있는 세상음악도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조직적이고 안무, 의상, 메이크업 등 빈틈없이 준비해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성가대원들은 그 귀한 직책을 맡고서도 연습에 충실하지 못해 늘 미안한 심정을 드러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지요. 철저하게 준비된 찬양대원들이 혼신을 다해 연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목사는 찬양선교 음악회에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당부했다.

찬양선교음악회에 관한 문의는 (564)714-069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제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gosainhanchurch.com 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남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권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msnhanchurch.com / www.lahc.com 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6904 Kiewit Ave, Buena Park, CA 92620</p>	<h3>남성일민교회</h3> <p>담임목사: 박현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일 3부예배: 오전 11:0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413-1900, Fax: (213)413-1911 3825 Wilshire Blvd., L.A., CA 90010 www.jehochurch.org</p>	<h3>남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박희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수일 3부예배: 오전 11:1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463-7324, Fax: (213)463-1098 1216 S. Fairfax Ave., L.A., CA 90024 www.yongrak.org</p>	<h3>남성서부교회</h3> <p>담임목사: 이경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463-7324, Fax: (213)463-1098 1216 S. Fairfax Ave., L.A., CA 90024 www.yongrak.org</p>	<h3>남성만민교회</h3> <p>담임목사: 권경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463-7324, Fax: (213)463-1098 1216 S. Fairfax Ave., L.A., CA 90024 www.yongrak.org</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463-7324, Fax: (213)463-1098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남가주리더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lead.org 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남가주사랑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다홍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동문교회</h3> <p>담임목사: 최태우</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463-6234, Fax: (213)463-6278 18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7</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대표: 권영국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463-7324, Fax: (213)463-1098 1216 S. Fairfax Ave., L.A., CA 90024</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626)793-6480, Fax: (626)793-6472 1308 E. Colton Ave., Pasadena, CA 91106</p>
<h3>삼성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심현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samsungchc.org 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미중앙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미주 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송경명</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일 3부예배: 오전 11:15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mihwanchurch.org 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매델린인교회</h3> <p>담임목사: 손연식</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626)454-4010, Fax: (626)454-4012 13705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mbc.org</p>	<h3>민쿠버비칼렐미아교회</h3> <p>담임목사: 임정택</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909)594-5700, Fax: (909)594-5717 8025 7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8</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범</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626)284-6214 1751 N. La Habra St., La Habra, CA 90621</p>	<h3>브리지교회</h3> <p>담임목사: 장성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626)284-6214 1751 N. La Habra St., La Habra, CA 90621</p>
<h3>세계비전 교회</h3> <p>담임목사: 김경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안디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지용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andyok.org 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얼마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현종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almahin.org 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임영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원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은혜인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eunghwan.org Tel: (714)271-2779, Fax: (714)271-2791 1648 Memory Blvd, Los Angeles, CA 90028 L.A.southridge@gmail.com</p>	<h3>인랜드교회</h3> <p>담임목사: 박진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inland.org Tel: (909)594-5700, Fax: (909)594-5717 8025 7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8</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권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창대교회</h3> <p>담임목사: 이준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changdae.org 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cornestone.org 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기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p> <p>www.torrence.org 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16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함 후원교회들 있습니다</h3> <p>■ L.A.: Tel: (213)219-2544, Fax: (213)219-2529 ■ N.Y.: Tel: (718)888-4400, Fax: (718)888-0074</p> <p>세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06.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20). 창조과학을 배우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생생한 이해를 비롯해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같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그분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영원한 능력을 가진 성경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들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비롯한 식물들과 동물들이다.

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완벽하게 들어 있다.

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과 같이 콩 종류는 계속해서 콩 종류를 남기고 팥 종류는 언제나 팥 종류만을 남긴다. 이 사실은 각 종류의 식물들이 처음부

안에서 유전정보가 재조합된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다. 물고기들도 같은 종류인데도 형형색색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종류의 새나 물고기가 다른 종류의 새와 물고기로 변화되지 않는다. 종류 안에서의 변화(변이)는 있지만 종류를 뛰어 넘는 변화인 진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창조 6일째,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 하셨는데 이때도 역시 “종류대로” 짐승들과 가축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을 창조하셨다. 이때 “종류대로”란 표현을 무려 다섯 번이나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고양이과(family)에는 36종(species)의 동물들이 들어있다. 그 가운데는 사자와 호랑이도 들어있는데 이들의 털은 무척 달라 보이지만 몸의 구조나 염색체 수 등이 일치한다.

또 동물원에서는 이들이 교배되어 새끼를 낳기도 한다. 창조과학자 중에는 서로 다른 속(genus)에 속한 동물들을 교배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비록 다른 종 혹은 그보다 관계가 더 먼 다른 속에 속한 동물이지만 서로 교배가 된다는 사실은 이들이 같은 종류라는 것을 시사한다. 진화론에 입각한 과학자들은 ‘중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에 틀림없다.

지금부터 약 6000여년 전 창조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명령)은 식물과 동물들에게 아직도 유효하며 흐트러짐 없이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단 한 번의 명령이 수천 혹은 수백 세대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정확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헛되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1).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면서 지금도 창조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3. 사람의 창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창조된 다른 모든 무생물과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성

인간, 식물, 동물 모습은 창조자 하나님의 증거 종류 안에서 변이 있지만 종류 넘는 진화는 관찰 안돼



(species)의 한계를 유전정보가 교류되는 한계 즉 교배가 되는 한계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듯이 수많은 서로 다른 그러나 가까운 종들이 서로 교배가 되고 있다. 이 사실은 진화론적인 생물 구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의 구분인 ‘종류(kind)’ 역시 교배가 되는 한계라고 본다. 그 이유는 방주에 동물들을 실을 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쌍으로 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에서 나왔던 종류의 대표로부터 여러 종들의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 서로 가까운 다른 종들이지만 같은 종류이므로 서로 교배가 가능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 간에는 교배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창조 5일째 “종류대로” 창조하신 물에 사는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 하셨다. 6일째 “종류대로” 창조된 동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역시 같은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창8:17)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창조 3일째 “종류대로” 창조된 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식물들은 동물들과 사람들의 먹거리로 창조하셨으므로 동물들의 번성을 위해서 식물의 번성은 필수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씨를 통해 동물들보다

경은 이 모습을, “사람이 무엇이기 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 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이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 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시8:4-8).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70억 명이 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누리며, 바라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자 거짓 지식(수백만 년과 진화론)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지금도 인류를 속이고 회의를 속이고 있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난 인류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다. 세상 과학자들의 한 연구결과(Nature, 2004년 9월30일)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가 180여 세대 6000여 년 만에 70억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막을 존재가 없는 것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시 27:1b). 할렐루야!!!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성경교회)

끝까지 완주함이 승리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분명고 박사 학위를 끝내고 대학교로 들어가 교수로 학위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를 하더라도 교회를 모르면 안된다는 그의 이유를 따라 시한부로 잠시 목회의 길에 발을 디디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여 열떨결에 그저 싫다고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나를 끌고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반항으로 시작된 목사 사모의 길이었습니 다. 그래도 남편에 대한 사랑은 회의에 넘치는 반항심을 종성 스레 누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순종하도록 나를 붙들고 앉혔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회의, 반항, 분노, 정죄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고동스레 지나갔습니다.

꼭 목회만이 하나님의 일인가? 왜 본래 뜻하던 학위 선고로 돌아가던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던지... 가르치는 은사를 알맞는 곳에 쓰면 안되는가? 설득도 해보고 “이혼한다, 죽는다, 한국으로 가버리겠다...” 막무가내로 협박해도 남편은 듣지 마는지 자기 소명대로 이민목회 벌써 36년째 들어섭니다. 그런데 정작 사명 받은 그는 말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다른 것은 신경을 끄는 바람에, 사명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오히려 죽기로 교회를 섰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인지요. 그대로 혼자 버려두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은 두려움 반, 주님이 부여하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반하지 못한 탓이었 습니다. 불타는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고 저들을 침례해주는 것이 온 몸이 배어있어 작은 이민 개척교회 5개를 안 해본 것이 없이 대단하고 섰습니다.

순복해도 힘든데 반항으로 시작된 나의 사모 길은 당연히 가시밭길이었습니 다. 평평한 날에 100년간을 방주를 짓는 노아... 가족을 설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사명을 받고 막무가내로 따라 줄 것으로 믿고 혼자 달려간 무심하고 무정해 보이는 노아... 그럼에도 타의 반 뜻아갔어도 특별한 구원받고 은총을 누리게 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이제 36여년을 뒤돌아보니 우리 가족과 너무나 똑 같습니다. 힘겨워 투덜대면서도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엄마를 따라 아빠를 세워가며, 자신을 믿음으로 무장하며 온 가족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모으는 것을 따라준 기특한 세 아이들입니다. 미래에 세 아이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들도 합류하면 노아처럼 8명의 노아 방주의 용사 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요모양이 우리 8식구를 주님의 가족 선교팀으로 쓰시려고 그토록 많은 일들을 이민 교회와 더불어 지나가게 하셨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지하여 이치를 굽게 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종의 우리 내외를 훈련하시고 온 가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 다. 우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방주 짓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소서! 서로가 뜨거운 가족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며 끝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 가족으로 축복하소서! 이 땅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히 여호수아처럼 선포하고 승리케 하소서! 주님의 무궁한 지혜와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2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2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2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2부) 수요일기도: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맨얼프교회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보스완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전 11:3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2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시카고에브른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알란사 재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7:00	앨파스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2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기도: 오후 7: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7:3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2부)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타코마사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2부)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2부)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2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1부-2부)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 오후 8:00(1부-2부)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2부) 수요일기도: 오후 7:00 목회기도회: 오후 8:00	



예장국제총회 및 GMI세계선교대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CC 탈북자 복송 반대 기도회가 중국영사관 앞에서 열렸다.



북한방북에 대하여 임덕순 장로가 설명하고 있다.

"성경대로 믿고 나가는 믿음 가져라" 대한예장 국제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및 GMI선교대회가 17일부터 22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날 저녁 만찬에 이어 열린 개회식은 한기홍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 입장으로 이어졌으며 은혜한인교회 중교등부 중장, 유년부 스포츠댄스, 은혜교회 세계선교 30년 GMI와 국제총회 특별 영상으로 이어졌다. 이어 김광신 목사(GMI총재)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리처드 마우 박사(폴리신학교 총장)는 축사에서 "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에서 일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 곳에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신자가 위해 일할 유능한 한국인 목회자를 일으켰다. 지금 바로 초기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열매로 오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국가 됐다. 오늘날 세상은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피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형 총회장이 고전 3:16과 요3:1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김 총회장은 "오늘날 자유주의의 불결로 성경해석을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 국제총회와 GMI는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대로 믿고 나아가길 바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각오를 새롭게 가져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부총회장 안동주 목사(생수의강선교교회)가 성찬식을 집례했으며 조경호 선교사(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간증을 했다.

이번 대회는 예배와 세미나 그리고 선교보고 등의 시간으로 가졌으며 목요일에는 목사안수식도 열렸다. 또한 구소련지역, 중국어권, 아시아지역,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한국 등 세계 각 곳의 선교부스가 마련됐으며 선교사들은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전통복장을 하고 설명회를 갖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준호 기자)

우리 외침 하나님이 들으신다! 6일 중국영사관 앞서 KCC탈북자복송반대 기도회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에 반대하는 해외 300인 목사단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11시 한인 타운 인근의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 기도회 및 항의시위'를 벌였다.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항의시위에서 목사단 측은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인권 보장과 복송 중단을 요구했다.

김인식 목사는 "2004년부터 시작된 KCC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셨고 열매 맺게 하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상원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 법안이 통과됐으며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등장했지만 북한경제가 무너짐으로 이미 배급제가 붕괴됐고 그동안 차단된 정보가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모임은 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의 48개 도시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 등에서 동시에 여는 시위이다. 두 달에 한번 첫째 목요일에 열리게 되는 복송반대 시위의 다음모임

은 12월에 열리는데 60개 도시에 열려야 한다. 이는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의 한마디 외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의 외침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책 임지신다. 중국지도자들이 듣게 되고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듣게 된다. 북한 통치자들이 듣게 된다. 북한 지식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인내하는 힘을 가질 것이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북한 동족들을 위해 외치고 기도할 때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울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난민들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갈 것이다. 이는 통일로 다가가는 길이다. 더 많은 동족들이 탈북 할 것이다.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지게 되고 통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자"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영양제공장 방문 생산 분배 현황 확인 크로스선교회 주관 30명 북한방북단 보고

북한의료선교를 담당하는 크로스선교회 주관으로 구성된 30명의 북한방북단(집행위원장 임덕순 장로)이 해외동포원외위원회의 초청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평양과 황해북도 일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7일 오후 타운내 JJ그랜드호텔에서 열고 북한방북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덕순 장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 제임스박 장로(남가주 크로스미션 운영위원장), 이민희 집사(남가주크로스미션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덕순 장로는 평양 근교의 동평양약약회사 등 제약공장 종합 영양제(기아치료제) 공장 등을 방문해 생산 및 분배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아원에 해당되는 육아원과 애육원도 방문했으며 장대현교회와 불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다. 임 장로는 이번 방문에서 약품부족현상을 보게 돼 나진선봉 지역에 선교사가 운영하는 제약회사를 통해 비타민 생산을 증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종용 목사는 이번 방북에서 불수교회와 장대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북한에서 예배와 의 차이점은 방북단 주도로 예배가

드러진 점이라 말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자들이 예배사회를 인도했지만 이번에는 이종용 목사가 예배사회를 인도했으며 아무런 제약 없이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호텔에서 예배드릴 때도 과거의 경우 목사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입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민희 집사는 그동안 북한에 여러 가지 비타민 공장을 세웠다. 이번에는 항생제와 결핵약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북한 아이들을 위해 생산되고 있는 방공과 우유 등이 함유된 영양버터 생산공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임덕순 장로는 "나진선봉에 마련되는 비타민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타민은 1봉에 350알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나오게 되며 이는 1년 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격은 북한의 낮은 임금 덕분에 1달로 50센트에서 2달로 1달러에서 공급이 될 것이다. 또한 1년에 10달러면 5명의 아이들에게 1년치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계를 비롯한 한인사회의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뮤지컬 통해 하나님 전한다 SOW, 2세 자녀위한 '파이어 크루세이드' 성료

Seeds of Worship(SOW, 대표 에스터박 목사)는 2세 자녀들을 위한 영적 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를 14일과 15일 오후 6시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에 위치한 그린힐스침례교회(담임 박길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에스터박 목사는 "SOW는 2010년에 창립된 2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단체이며 뮤지컬을 통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목사는 "SOW는 그동안 두 번의 오디션을 실시했으며 대상은 1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이다. SOW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단지 노래와 율동만 잘하는 친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친구들은 물론 불신자 친구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SOW 아이들이 미니 스트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자기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의 삶까지 영향

력을 미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SOW는 지난 6월 세리토스장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SOW는 집회를 열 때마다 10곡을 가지고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으며 한 곡을 익히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SOW의 세 번째 오디션은 22일(토) 남가주빛나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갖게 되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29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연습에 들어간다. 연습시간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4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은 3시부터 5시까지 갖게 된다.

한편 15일에 열린 집회는 SOW뮤지컬팀의 뮤지컬 공연과 그린힐스침례교회 재 존스 목사가 설교했으며 설교 후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SOW의 뮤지컬 오디션 등에 대한 문의는 (714)904-8434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교회 9월 정기예배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교회(OCU 회장 김희창목사) 9월 정기예배를 지난 11일 저녁 미주 북을 방송 4층에서 9.28 서울수복 기념예배로 드렸다.

백영목 목사(육군)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동술 목사(해병)의 찬양인도와 최훈일 부회장(해병)의 기도예로 이어 이경호 목사(해군/영선교회 음악목사)가 '하나님이 보입니다'(시1: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군 생활을 통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조국에 역사하신 은혜

감사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동술 목사의 선창으로 애국가를 부름으로 참석한 이들은 조국사랑을 표했으며 김희창 목사의 서울수복예배의 의의와 소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어 2부 순서를 통해 한국기독교인회 고별료회(OCU) 선교부장인 여광조 목사가 이곳에 방문하여 본부소식과 선교보고회를 가졌다.

10월 정기모임은 9일(토)에 가질 예정이며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설교를 맡는다.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기 기독교교회)



Seeds of Worship의 2세 자녀들을 위한 영적 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에 위치한 그린힐스침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개강예배

6대 남침례교단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은 새 학기 개강에 앞서 지난 21일 개강예배를 드렸다.

미국남침례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국 남침례교단총회의 집행위원장(President and CEO, the Executive Committee of SBC)인 프랭크 페이지 박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만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히12: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이 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새로운 교수진으로 헌신하는 Dr. Arbo, Dr. Hawkins, Dr. Thomson, Dr. Lee 등의 교수들이 The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의 Statements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편 한국부 박사원 및 온라인 석사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우 교수가 6대 남침례신학교들 중에서는



미드웨스턴 정태우교수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부 학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2012년 가을학기 한인학생회(MBTS Korean Student Fellowship at Main Campus) 회장도 박준호 목사가, 총무로 최효준 목사가 선출됐다. 현재 미드웨스턴의 한국박사원은 2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매일 기도회와 매일 정기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9월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 기도성회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 담임

일시 : 2012년 9월 20일(목) ~ 27일(목) (매일 오후 7:30, 오전 10:30)

문의 : (818)306-4912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02년 8월 15일에 설립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라야마로 내 카라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기도회와 매일 초빙된 담임목사가 직접 설교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척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세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쌓여져서 회복자들은 권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어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담임 조성근 목사
www.galmelsan.or.kr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 306-4912

1982년에 시작된 갈멜산금식기도원은 365일 언제나 기도성회가 있으며 매주 목, 금, 토요일은 불야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재 갈멜산 금식기도원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개교회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매주간 약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그리고 사도가 필요로 하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선교 : 미자립교회 후원, 신학생 훈련 지원, 경향선교, 호스피스 후원

국외선교 : 교회개혁, 건축, 사역 지원
모스크바(인구전, 우주비행사, 김철우, 보라달(장구회), 파라과이(전영선, 박성진, 김비애, 오재원, 나르도르(홍사순), 멕시코(우상현, 임영호, 박종, 김광현, 박승호) 네델란드(김재, 김재우), 뉴질랜드(김호정), 호주(김우철), 베트남(이영석), 인도(현승민), Hsp선교회, 대신제정선교회)

인도선교 : 교회 개혁과 현지 사역자 훈련, 사역 지원
교회 : 호수교회(대만), 코네티컷(미국), 인도(미국)선교(신촌) 상원교회(인도), 마드라스(인도), 크리스티아리 교회(인도)

인도기도원 : 타달라두주 호수

선교사 지원과 보육기
인도(인도) 비전 상하에 한국에서 파송된 교도관 선교사들에게 소수민 생활의 어려움과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www.galmelsan.or.kr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8-14
Tel (031) 472-7212-6 Fax (031) 472-7211

www.galmelsan.com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일리 26-3번지
Tel (032) 937-9724-6 Fax (032) 937-9727

- 영혼과 심신, 생활의 큰 영적 충전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의 불길이 평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거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 용감히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초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로한 목사(남서울릉암교회)
이필재 목사(갈보리교회)
송용길 목사(신원교회)
피영민 목사(갈멜산성령교회)
권주환 목사(베다니교회)
유관재 목사(성령교회)

www.galmelsan.or.kr
www.galmelsan.com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관 제11회 창작성가의 밤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WMU음악과 장학기금마련 초청연주회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트로넬 말란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큰 기쁨”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제11회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 교수) 주관 제11회 창작성가의 밤이 나성사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미주한인창작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작곡, '여호수아의 고백'(이종만 작시, 이호준 작곡), '기도'(최선호 작시, 백경환 작곡), '협한 시편 묵속에서'(Anonymous, 백경환 편곡) 등을, Choral Alchemy of LA(지휘 박신실)가 '그날'(이인종 작시, 조성원 작곡) '은혜로운 길'(조준 작시, 지성신 작곡), '하나님 우리를 위해'(오영래 작시, 백낙금 작곡) 등을 불렀다.

이날 김미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큰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번 창작성가의 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WMU 음악과 장학기금마련 초청연주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WMU 음악과 장학기금마련 초청연주회를 14일 저녁 8시 지퍼홀 풀번스쿨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작년에 이어 남아공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트로넬 말란이 출연해 격조 높은 연주로 가을하늘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번 연주회에서 말란은 하이든의 'Piano Sonata in C major, Hob XVI/50', 피오프트 차이코프스키의 'Transfigured Tchaikovsky', 아이작 미크노브스키의 'We sat together' Op.73 no.1, 프렌즈 리스트의 'Valse-Impromptu in A-flat major, S.213', 로버트 슈만의 'Symphonie Etudes, Op.13' 등을 연주했다.

말란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밝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며 건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곡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준호 기자)



세계비전교회 이웃초청 전도대각성부흥회에서 찬양팀과 김영빈 목사가 찬양을 드리고 있다.

“구원의 즐거움과 열정 사랑 회복”

세계비전교회 이웃초청 전도대각성 부흥성회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영빈 목사) 이웃초청 전도대각성 부흥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회복 시키소서'란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성회는 "구원의 즐거움과 열정,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성회로 이어졌다.

첫날 집회는 김영빈 목사 사회, 라태한 장로의 기도로 시작돼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감절의 능력 받아 땅 끝까지'(왕2:8-14)란 말씀을 들고 단애 선 한기홍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날 새벽과 저녁집회는 김기동 목사(소중교회 담임)가 강사로 '열려있습니까? 믿으십니까?'(마6:31-34), '머물고 있습니까? 전진하고 있습니까?'(신8:1-4)의 말씀을 전했다. 김영빈 목사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세계비전교회는 지난 7월 본 교회 2대 목사로 김영빈 목사 청빙, 취임예배를 드린바 있으며 '말씀이 살아있는 행복한 교회,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기쁨의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꿈꾸며 회복과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

(이성자 기자)



KAPC서가주노회는 제38회 정기회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개최했다.

KAPC서가주노회 제38회 정기회... 목사안수 3명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서가주노회(KAPC, 노회장 정중운 목사)는 제38회 정기회를 지난 11일 오전 10시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에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오요한 목사의 사회로 나승렬 목사가 기도를 했으며 정중운 목사가 '삼상위일체 하나님의 복'(고후13:13)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조해한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이규보 목사의 집례로 열린

성찬식은 이규보 목사가 기도를 했으며 이규보 목사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마26:26-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창우 목사가 축도했다.

이번 노회는 목사안수식도 함께 열렸는데 박헌성 목사가 '주의 종의 자세'(고전4: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김주은 이근수 인대진 등 3명의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도, 축사 변영의 목사로 진행됐다.

변영의 목사는 "은혜 30년사의 출판에 축하한다. 그러나 30년이 되었기에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겠는가?"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며 "은혜한인교회는 은혜의 메이커다. 주의 이름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교사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24일(월)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5주 동안 새소식반 전도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의 강습비는 무료이며 전도자, 교사, 학부모 등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213)382-1544

세리토스장로교회 청년부 새생명전도집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청년부(담당 강주영 목사)는 새생명 전도집회 '리얼 라이프 페스티벌 2012'를 28일(금)과 29일(토) 양일간 세리토스장로교회 페이스센터 채플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첫날 '청년들의 101번째 선택', 둘째 날 'Select'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문의: (562)860-5451

OC교협 자녀교육 및 교사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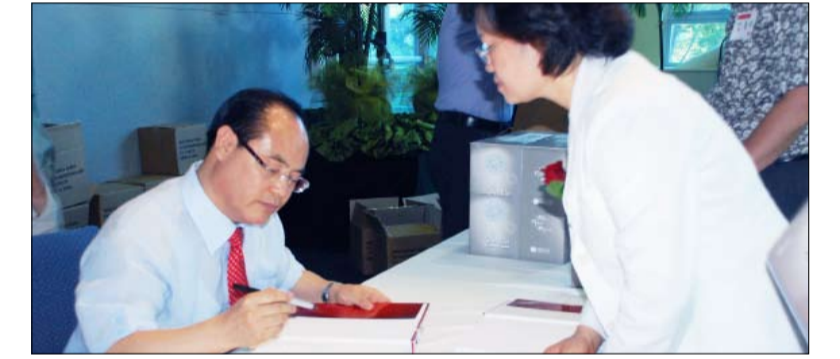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는 'SS혁신보고서'의 저자 김만형 박사(애드벤처 교육개발원 원장) 초청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다음세대의 부흥, 주일학교 성장동력을 찾아오시오.'라는 주제로 28일(금)부터 10월 1일(월)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한다. 일정은 △28일(금) 저녁7시30분 자녀교육 세미나1 △29일(토) 새벽6시 자녀교육세미나2 △29일(토) 오전10시-오후4시 주일학교교사 세미나 △29일(토) 저녁7시30분 자녀교육세미나3, 30일(주) 오후3시 자녀교육세미나4 △10월 1일(월) 오전10시-오후12시 목회자세미나 △10월 1일(월) 오후1시-3시 차세대솔루션 목회자 포럼

▲문의: (562)691-0691, (714)699-0210, (562)691-0691

제6차 영상설교 세미나

제6차 영상설교 세미나(LA)가 오는 10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영상설교 아카데미 LA지부(회장 곽부환 목사) 주최로 열린다. 강사는 김석근 목사(영상설교아카데미 대표)이며 회비는 신규 회원 100달러, 평생회원 300달러, 재료비 50달러(세미나만 참석)이다. 10월 1일 오전시간은 오픈강좌로 열리게 되며 세미나 참석 시 준비물은 개인용 노트북이다.

▲문의: 곽부환 목사(213)321-4433, 양경선 총무(213)255-1725, 임인철 서기(714)793-3582



은혜의 30년 책자에 사인을 하고 있는 한기홍목사.

했다. 한기홍 목사는 고전 10:31의 말씀과 함께 "은혜한인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 선교의 역사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30년사 발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날 본 교회 설립자인 김광신 목사가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며 감사의 뜻을 전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성령의 능력 받아 땅 끝까지'는 총 400쪽으로 축사의 글과 행사와 보물 비웃음 제 1부 '하나님의 동행 30년', 제 2부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 3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선교', 제 4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제 5부 '능력 받아 땅 끝까지'로 구성된 은혜교회 3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편집했다.

한편 출판기념 예배에 앞서 국제규격에 맞는 족구장과 농구코트를 갖춘 '은혜광장' 오픈식을 가졌다. 새롭게 오픈된 은혜의 광장은 만남과 교제, 친선의 목적으로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자 기자)

후임목회자를 청빙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회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 대상

1. K.P.C.A 소속 또는 본 교단에 가입이 가능하신 분
2. 정규 신학대학에서 교역학 석사(M.Div)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신 분
3. 이민교회 목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시고, 연령이 만 45세 이상 56세 미만인 분
4.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 사용에 불편이 없으신 분
5. 미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제출자료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가족사항 포함)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최근 설교 Tape 또는 CD 2매
5. 교계 원로의 추천서
6. 신앙고백 및 목회 소견서

접수 마감

 2012년 10월 6일까지

자료 보내실곳

 John C. Yoo
1825 Coachwood Ct, Hacienda Heights, CA 91745
e-mail : pastorjcmn@yahoo.com (전화 문의는 사절합니다)

*접과는 개별 통지해 드릴 것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청빙이 결정되면 2013년 3월에 노회 가입 절차를 거쳐고, 파트타임으로 현 담임목사님과 1년간 동역하신 후, 2014년 4월 1일부터 본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시게 될 것입니다.
*Buena Park 지역에 있는 소규모 교회입니다.

가 주 장 로 교 회

California Presbyterian Church

6575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714) 527-5040, (714) 588-1109
주일예배 : 일요일 낮 12시 30분, 금요찬양 기도회 : 금요일 저녁 8시.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영어 : _____ 명 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한국 장로교 설립 100주년을 맞는 2012년 각 교단 총회가 1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번 총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문제와 이단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교단 안팎의 관심이 매우 높다.

17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고신, 백석 등 장로교 주요 교단이 총회를 시작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예장 개혁신(5개 교단 통합총회)은 18일 총회를 개막했다.

올 초부터 한국 교계의 뜨거운 이슈가 된 교회연합기구 문제는 통합과 합동 등 거의 모든 교단 총회에서 주요 문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기총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통합과 백석은 이번 총회에서 한기총 문제와 한교연 가입(추진)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합동은 총회 실행위원회의 한기총 회장 후보 선출·파송 권한에 대한 판단, 한기총에 대한 교단분담금 납부 중지 등의 다양한 현안이 올라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 임의 탈퇴를 통보한 기침은 이번 총회에서 한교연 가입 여부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개최될 세계교회협의회

주요 교단총회 17일부터 일제히 개막

교단명	일시	장소	특징
예장고신	17~21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천주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의 특정종교편향정책 대책 마련
예장백석	17~20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	-한교연 가입 추진 여부 -목회자 장년제 폐지
예장통합	17~21일	서울 소망교회	-한기총과의 관계 정리 -연교단 배리 문제 처리
예장합동	17~21일	대구성명교회 비전센터	-총회제신교회(GMS) 정상화 -신기제도 변경,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기장	18~21일	강원 춘천 대명비밀리크	-교단 총무 직선제 -총회목회신학대학원 폐지
예장합신	18~20일	경기 군포제일교회	-노회 지역 조정 -목회자 장년 조정
기침	18~20일	지구교회 분당성전	-30년만의 규약개정 통과 여부 -한기총과의 관계 정리
예장개혁신(5개 교단 통합총회)	18~20일	서울 미아스망교회	-목회 장년 연장 정년 폐지 -여성 안수

반기독세력 대처 등 현안 잘 풀어낼까?

(WCC) 부산 총회에 대한 각 교단의 입장 정리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가입 교단인 예장통합과 기장 등은 WCC 총회를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교단들이 이번 총회에서 WCC 부산총회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속 교단 목사들의 성윤리 및 재정 문제와 관련, '목회

자 윤리강령안' 제정여부가 결정된다. 또 직선제 도입 등 선거제도 변경안도 현안이다. 세계총회 선교회(GMS) 기금 문제와 아이티 구호금 전용 의혹 등 예민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 찬송가 채택 여부와 목회자남세연 구위원회 설치안 등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예장통합 총회에는 합동과 반대로 부총회장 선거에 제비뽑기 도입해야 한다는 현안이 상정된다. 금권선거를 뿌리 뽑기 위

해서는 제비뽑기가 낫다는 이유에서다. 통합총회에서는 총회연계제단의 자금 부실운용 문제가 총회장을 뜨겁게 달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의 피크타임 요금제에 따른 총회 차원의 대책과 안티기독교사이트에 대책 등도 현안이다.

기침은 지난 101차 총회 결의에 따라 상정된 규약개정안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이번 규약개정은 30년 만에 이뤄지는 데다 선거관리위원회 폐지와 은퇴·원로 목사 투표권 폐지와 같은 민감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여

의도 총회회관 건축헌금과 각 기관의 입주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배곡원 침신대 총장의 인준여부도 관심사다.

예장백석 총회에는 현 교단 헌법이 '항존적의 정년은 70세'라고 명시한 항목을 목사만 정년이 없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이 현안됐다. 예장고신은 가톨릭에 대한 총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정부의 특정종교 편향정책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응과 대책 마련 등을 집중 논의한다.

교단들 총회 이모저모

○...정준모 예장 합동 총회장이 18일 총회에서 감사부·재판부 부원들로부터 일일이 다짐을 받아 내 눈길을 끌었다. 각 부서 임원들은 보통 총대들 앞에서 의례적 인사를 하지만 이날만큼은 "공평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손을 들고 선서까지 했다. 정 총회장은 "과거 총회가 제자교회 광주중앙교회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감사부와 재판부의 잘못된 처신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별히 두 부서는 정말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야 우리 총회가 산다"고 신신당부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하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총회 기획국장,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필리핀 아태신학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예장대신총회에 이어 예장백석총회도 17일 총회에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가입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해서는 탈퇴를 선언했다. 예장한영총회(총회장 한영훈 목사)도 한교연 가입을 결의했다.

○...경기도 성남 지구총교회 분당성전에서 열린 기침 총회장 박에서는 침례신문 등 기관별로 홍보부스를 마련,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총회는 총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침례신문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침 총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회 일정 및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총회장 박에서 '여성목사 안수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전도사 등은 과반수 찬성을 얻었는데도 3분의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자 아쉬움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이홍정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총대들은 신임 사무총장 인준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투표 없이 박수로 의결하자고 의견을 모아 이 목사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그릇 같은 부족한 저를 사무총장으로 인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사무총장직을 공적 사역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순교의 자세로, 순례자의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서울 배재고와 서울대를 졸업

주요교단 총회장 선출

총회장 정준모 목사,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

예장합동

예장합동총회는 17일 대구 성명교회 비전센터에서 97회 총회 첫날 일정을 갖고 논란 끝에 부총회장 정준모(대구 성명교회)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개회 직후부터 거센 논쟁이 벌어져 험로를 예고했다. 1338명의 총대들은 용역 동원과 총회임원 후보의 노래주점 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다수의 총대들은 총무가 총회현장에 용역을 동원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총대들은 "성스러운 총회에 어떻게 용역을 동원할 수 있나. 즉각 철수시키라"고 주장했고 황규철 총무는 "신변 위협이 컸기에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장시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간 끝에 이기창 전 총회장이 나서 "총무의 인격과 신앙을 믿으며, 책임지고 용역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강행하려 하자 일부 대의원이 "총회장 후보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정준모 총회장 안명환 부총회장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며 저지하고 나섰다. 이후 선거 진행과 중단을 주장하는 50여명의 총대들은 강단에서 서로 뒤엎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장내가 혼란을 거듭했다.

격한 논쟁 끝에 "선거를 유보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펼쳐낸 다음 떳떳하게 총회장으로 세우자"는 안과 "일단 총회장으로 추대한 이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이 나왔다.

그러나 혼란은 계속됐고 결국 이전 총회장이 나서 "교계 모방

송사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가슴에 묻어두고 이후에 법적으로 처리하자. 총회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면서 정준모 목사를 총회장 후보로 제정했다.

총대들은 선거에 들어가 정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다. 목사부총

회장은 4명의 후보 중 안명환(수원 명성교회) 목사가 제비뽑기를 통해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에는 남상훈(삼례동부교회) 장로가, 서기에는 김형국(하양교회) 목사, 회록서기는 김재호(동산교회) 목사, 부회록서기는 최우식(목포예수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한 현실에서 중책을 맡아 중압감이 다가온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음을 깊이 인식하고 총회가 작

은 이들의 빛이 되고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회장 손달익 목사, 부총회장 김동업 목사

예장통합

예장통합총회 신임 부총회장에 김동업(64·목민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통합총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그리스도인, 작은이들의 빛'을 주제로 제97회 총회를 열고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총회 첫날 목사·장로로 구성된 총대 1500명 중 1459명이 참여한 부총회장 선거에서 김 목사는 결선 투표 끝에 822표(56.3%)를 얻어 631표를 얻은 이승영(새벽교회)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목사는 부총회장을 거쳐 내년 9월 시작되는 제98회기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장로 부총회장은 단일 후보로 나선 전계욱(순서교회·영송교회) 장로가 압도적인 지지도로 당선됐다. 제97회 신



▲손달익 총회장 김동업 부총회장

임 총회장은 부총회장인 손달익 목사가 이어받았다.

기타 임원으로는 서기 류영모(서울서북교회), 부서기 김진홍(충북노회) 목사, 회록서기 신정호(전주노회) 목사, 부회록서기 민경자(서울북교회), 회계 김영환(서울동남노회), 부회계 이형규(서울남노회) 장로가 각각 임명됐다.

손달익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사회적 난제들이 즐비

총회장에 박정원 · 부총회장에 주준태 목사

예장고신

예장고신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현 부총회장 박정원(68) 대연중앙교회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예장 고신은 17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민족과 열방을 위한 고신교회 회복과 성장'(행 1:12-14)을 주제로 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예배에 이은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박정원 목사가 과반 득표(찬성 420표, 반대 18표)로 무난히 당선됐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주준태 송도제일교회 목사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수만 부산남교회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수관 서울영천교회 장로가, 3년 임기의 사무총장에는 구자우 목사 이크교회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박 신임 총회장은 고신대 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을 거쳐 1977년



▲박정원 총회장 주준태 부총회장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동부산노회 연합당회장, 총회 북한선교 전문위원, 총회 6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적 가치관으로 흔들리고 있어 진정한 영성운동을 통한 갱신이 요구된다"면서 "총회 차원의 화합과 회개운동, 영적 교회 갱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중공동체인 북한을 품어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하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입(Ba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504면 / 18,000원 (1-13권) / 653면 / 25,000원 (14-23권) / 신구약해설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뿐만 아니라 유월절, 이삭의 기쁨, 농사적상, 성령의 계사의 식을 깨닫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금강종교인들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 문화 배경

208면 / 8,000원

유대인회상심주의

276면 / 10,000원

장재일 목사

- 부산신대위원장
- 에쿠살리아대학성경지도역사학박사
- 현세이브대학PhD 과정
- 현세이브대학총장
- 현한국어사서연구소연구위원
- 현미시라델리아대학박사

SEOUL 서울국제도서전

BOOK FAIR 2012

6. 20. - 24. COEX A/B홀

www.sbf.or.kr

http://www.israele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 입국 가이드북

· 한국인터넷주소 관리위원회

· 휴메이디 www.humedi.co.kr

· 주소 서울특별시 164-3 · 전화 02-2747-1004

· 출판사

우간다

쿠미프로젝트 8월의 소식을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세아 6:1, 2)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몇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과 협의해야 할 일들 때문에 잠시 귀국해서 접한 한국의 날씨, 말로만 듣던 무더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은 우간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바람으로, 비로 겹친 태풍 때문에 힘들어진 이웃들의 모습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께서 친히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의 첫 소식으로는 의과대도 사용할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아직 의과대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컴퓨터 랩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 랩에는 여러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노트북과 기아대책에서 후원하신 넷북으로만 구성되어 사용하기로 하여 첫 수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방에 전자책 설비도 함께 갖추어서 명실상부한 e-library 겸 컴퓨터정보실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달에도 8분(김연희, 전은석, 강대영, 남재만, 울더베스트, 남창희, 한표성, 무명)이 13대를 후원해주셔서 전 부 67대가 되었습니다. 일차 목표인 100대를 거의 채워가고 있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한 해부학 실험실로 사용할 건물을 의과대 강의동 뒤쪽에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50% 이상의 공정을 끝내었기에 9월 중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실습기자재들도 잘 채워질 것입니다. 이 실험실에는 아직도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들도 잘 준비할 수 있

게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과대학 인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고등교육위원회의 허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곳 우간다 의료진과의 협의체제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 받았는데, 이분들의 일정들이 너무 바빠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께서 세밀히 간섭하셔서 9월 중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어진 기자재를 사용할 실습실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고 있는 과학관의 건축 공사 재개가 우간다 교육부의 계속적 지원이 지체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자체자금으로 이 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꽤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 실험실 없이는 인가가 어려우므로 자체자금으로 완성하든지, 아니면 종합실험실 건물만 따로 건축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부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의 재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 기자재를 기증해주신 제이오텍 김진영 집사님은 지난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서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pouts of Water에서 짓는 세라믹정수필터공장도 고로를 만들고, 전기 및 물도 부분적으로 연결하였고, 몇가지 기계들을 설치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 중에는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는 학생대표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공장 학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을 위한 태양광설비가 필수적인데, 기증받은 73장의 판넬을 이곳까지 운반하는 데만 천여만원의 비용이 들고 필요한 배터리 등도 구입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비용도 잘 마련되어져서 하루빨리 들어와 설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편지

케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 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 세상이 잔치를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 하-7)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Buffalo, NY에서 문안드립니다.

7월 8일 가리사 지역에서는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AIC교단의 가리사 교회에 무슬림들이 수류탄 2개를 던졌으나 불발했습니다. 지붕 위에 수류탄을 던졌지만 평소에도 가끔 돌맹이를 던지곤 해서 이 날도 돌맹이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수류탄이 불발하자 무장한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찬양인도를 하던 젊은 교우들에게 총을 난사해 17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의 처제가 죽고, 사모님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갈수록 기독교와 무슬림이 함께 하는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명의 피해 없이 복음이 원만하게 증거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냐 북동쪽 가리사 지역 타나 강 유역에 거주하는 올마 부족(Orma)과 포코모(Pokomo) 부족 간의 물과 소와 양들이 먹을 풀로 인한 다툼이 확산되어 60여명이 죽고 부상당하는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두 부족 간의 다툼이 빨리 종식되어 화해와 용서로 인한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7월 6일까지 강의를 마치고 11일까지 학기말고사를 치고, 채점하고 7월 12일 마시기를 떠났습니다. 강의, 선교사 훈련학교와 게스트하우스 건축 등 안식년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로 분주하기는 했지만 계획했던 부분까지 마치고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셨던 분들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으매 감사를 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 건축 현황

유치원 교사훈련원은 3명의 학생들이 24과목을 마치고 교생 실습을 3개월 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학교에서 교생 실습하는 학생들을 다섯번 점검하고, 교육청에서 한 번 더 나와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11월에 정부에서 하는 시험에 2명의 학생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잘 치를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은 조금 더 실습을 하고 내년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사 훈련원과 유치원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이 나왔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여러 곳에서 인스펙션이 있을 것이고, 그 서류가 접수되면 6개월에서 1년반 안에 허가증이 나올 것입니다. 유리창도 없고,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2013년 1월에 유치원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현지 노회의 노회장이 요청을 해 와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노회장의 인도 아래 유치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부터 시작한 이번 팀의 4년간의 사역 후 가지는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혜가 이태카 대학에서, 넷째, 미해가 로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둘째 인해도 근처 버팔로에서 그동안 중단하였던 학업을 다시 하기로 하여 저희들도 아이들 곁에서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날씨가 따뜻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라는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버팔로에 아는 분이 없어서 정착하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아파트를 얻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영과 육이 재충전하며, 다음 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더불어 학교들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사역은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다음 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케냐학생들을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좀 더 깊이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준비를 시켜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AIM에서도 오랜 동안 기도해오고 있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입니다. 혼자는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만큼 환경도 열악하고 힘들고 덥습니다. 저희가 있는 마싱가는 같은 타나 강을 끼고 있기에 그곳의 환경과 비슷하고, 학생들은 보통 1-2시간 걸어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현지 교단과 저희 학교, 교사훈련 학교에서 훈련하여 같이 일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고서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Buffalo, NY에서 이사야(이영호), 이에경 선교사 드립니다. 이메일: isaiah.lee@aimint.net, isaiah0814@gmail.com

신천지 신도 7만명 대규모 집회 16일 주일예배 참석안했다면 ‘추수꾼’ 의심자

“교회 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성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16일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진용식 목사)

수꾼을 가려내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천지 신도라면 누구나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평화·광복 하늘문화 예술제전’에 의무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이 대회는 신천지의 세력을 과시하는 스포츠 문화 퍼포먼스 행사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7만여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총집결한다. 대회는 지난 14일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사단법인 만남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 100개국 20여만명이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해 참여한다”고 자랑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대회다. 신천지 신도들은 지방(지역)별로

카드섹션을 준비하고 축구 농구 족구 줄다리기 마라톤 등 스포츠 경기는 물론 야간공연과 퍼레이드 대동제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추수꾼이라면 새벽에 상경해 밤늦게 귀향할 수밖에 없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장은 “16일 대회야말로 신천지 골수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라면서 “지방에선 새벽부터 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뒤 행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활동하는 교회의 예배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이어 “전국의 신도들을 오전 8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 집결시키고 대규모 카드섹션을 위해 14시간 동안 자리 이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서울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추수꾼 역시 예배 참석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 진용식(안산 상록교회) 목사도 “신천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만남’이라는 위장 봉사단체와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신천지 본부에서 대회에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는 지침을 내렸기에 전국교회는 주일 출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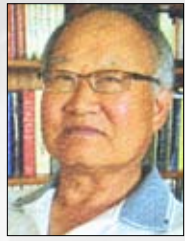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기독교문학소설

여리고로 가는 길 (3)



정중해 박사 (문학인)

어머니는 진태를 길러 꼭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일찍이 장사를 시작했다. 젊은 아이들이 풀떡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여러 중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교문 앞에 자리를 잡고 웅크리고 앉아 수없이 풀떡을 구워 팔았다.

아들 진태는 어머니가 피뎀 흘려 번 돈으로 자기를 고등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마련해 준 그 노고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하루 속히 돈을 벌어 어머니를 좀 효감시켜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가 젊을 때 돈 많은 남자에게 쪼여 신세를 망쳤고, 태어난 자식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느라 풀떡장사를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자라난 진태는 일찍부터 돈에 대하여 한이 맺혀 있었다. 학교 공부를 끝내고 사회로 나가면 반드시 두둑이 돈을 벌어 어머니와 함께 제일 먼저 가난에서 해방돼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

그러던 진태가 어엿이 직장을 가지고 첫 봉급을 타서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바쳤을 때 어머니는 자기가 자랄 때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때의 정황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주었다.

진태의 어머니는 한국이 일제 통치하에서 해방이 되자 어른들이 너무 감격해하고 좋아하니까 자기와 같은 어린 자식들도 덩달아 좋아했다고 했다. 진태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생소한 이야기라 호기심이 생겨 어머니에게 캐물었다.

“그때 어머니는 몇 살이 되었지요?” “일본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되었다. 아마 내 나이가 열두 살쯤 되었을까? 그러나 나라가 곧 남북 두 쪽으로 갈라지고 몇 년 후엔 또 6.25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니 사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전쟁 때 할아버지는 뭘 하시면서 살았지요?” “우리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 갔다. 거기서 아버지가 행상을 하면서 겨우 그날 벌어들인 그날 먹고 살았지.” “그래서 서울에는 언제 돌아왔지요?”

“부산으로 피난갔던 정부가 환도를 하고 나서 그 이듬해 우리도 곧 서울로 돌아왔다. 그 당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꼬박 하룻밤을 세우거나 또 반나절이 더 걸렸지 뭐야. 삼등석이라 그런지 승객들 의자가 모두 딱딱한 나무였어. 우단을 붙여 놓으면 구두담이들이 와서 면도날로 다 베어 가니까 좌석을 아주 나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더군. 이등차는 경비가 엄중해서 겨우 우단이 붙어 있더구나. ‘사흘 굶어 도적질 아니 할 놈 없다’더니.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아진 지금은 그런 것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잖아. 무엇보다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의 경제부터 살려놓고 볼 일이야.”

진태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난이아말로 사회악의 근원이고, 우리나라 속담대로 정말 ‘가난이 죄요, 가난이 원수구나!’ 하는 관념이 철두철미 머릿속에 박히고 말았다. 진태는 하루속히 그 빈 가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건설회사에 입사하자 보수를 넉넉히 주는 해외근무를 자원하여 중동으로 떠났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투자 이

민을 결정할 것도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겨우 그런 숙명적인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 감행한 하나의 모험이었다.

일요일이었다. 현수가 집에서 자기 학교의 한국 친구를 따라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간다고 친구 가족의 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태는 현수가 친구 사귀기를 꺼려하고 집안에만 들어박혀 있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지 몰랐다.

현수는 다음 일요일에도, 그 다음 일요일도 계속해서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갔다. 일요일 예배시간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방과 후나 토요일 아침 운동과 친교 시간이 있다고 교회로 달려갔다. 현수는 교회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날이 갈수록 얼굴에 서려있던 수심의 구름이 점점 사라지고 성격이 차츰 명랑해져 갔다.

현수 말이 자기 교회 존 안(John Ahn)이라는 목사는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했다. 존 안 목사는 미국 군인 출신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는데, 영어는 미국사람처럼 유창하고 한국말도 그가 막히게 잘했다. 한국인들은 그를 안요한 목사라고 불렀다.

어느 수요일 저녁,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진태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현수가 교회에서 돌아오지 않아 데리러 갈 잠이었다. 차를 꺼내려고 차고 문을 열어젖히자 현수를 태운 차가 드라이브 웨이로 들어왔다. 현수가 차에서 내리자, 사소일대쯤 되는 헌질한 백인 남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같이 걸어 나왔다. 현수가 안요한 목사를 아버지에게 소개했다.

진태는 현수를 통해 안 목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안 목사를 꼭 한 번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터였다. 그래서 진태는 고맙게도 현수를 태워 자기 집까지 데려다 준 안 목사에게 감사하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나서, 잠깐 집안에 들어와 차라도 같이 들자고 권유했다. 안 목사는 거절하지 않았다.

진태는 안 목사를 거실로 안내하여 안락의자에 앉게 하고 자기는 부엌에 들어가 물을 채운 주전자와 스토브에 올려놓고 전기 스위치를 돌렸다. 물이 끓을 뻐 끓기 시작하자, 주전자와 재스민 차, 오랜 지 차 봉지 등이 담긴 작은 점心和 물컵 두 개를 나무 트레이에 담아와 안 목사가 앉아있는 탁자 위에 놓았다.

안 목사는 예의바르게 몸을 앞으로 굽실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는 끓인 물로 재스민 차를 만들어 마시며 비오는 날에 따뜻한 차를 마시니 방안이 아늑해 차 맛이 최고라고 했다.

진태는 안 목사에게 며칠 동안 변덕스러웠던 LA의 날씨 이야기를 하니까, 그도 한국말로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장마 이야기를 꺼냈다. 안 목사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말하니까, 진태는 그가 벌써 구면이니 한국 사람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다음호에 계속)

ABD선교부, 파라과이ANAC선교부와 동역

ABD선교부(강성철, 이화평 선교사 공동사역)는 지난 6일 파라과이 남바리에 소재한 ANAC선교부(대표 양창근 선교사)와 양해각서를 조인하고 중남미 선교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남미 노회에 함께 참여한 김영수 목사, 최춘수 목사, 양삼일 목사, 여태정 목사가 함께 배석한 가운데 의미 있는 역사의 장을 열었다.

ABD선교부가 첫 사업으로 약속한 파라과이 군 장교들의 성경공부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각 부대를 순회하면서 군복음화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ABD선교부)



선교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우기의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2주에 걸쳐 에티오피아정교회 교황이 심장이상으로 서거했으며 발인도 하기 전에 멜레스 제나위 국무총리가 서거해 나라가 전체적으로 암울한 상태입니다.

1. 에티오피아 수상, 멜레스 제나위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 한주 동안에 에티오피아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



도자가 갑작스럽게 타계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역사상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멜레스 총리는 8월 21일 새벽 4시 51분, 유령의 부부열 병원에 입원한 지 두 달 만에 회복 중에 전염에 의해 사망했다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티그라이의 젊은 시절에 공산정권을 물리치고 1991년 대통령이 되었고, 1995년부터는 국무총리로 재직 21년간의 강한 정부, 빈곤퇴치 등 소말리아등 알카에다 소말리정권을 위해 수많은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평화 유지군을 파병하기도 했는데, 9월 2일 주일에 장례식을 국장으로 했습니다. 정권의 공백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인 하일레 마리아 데스알렘이 맡기로 했습니다.

기도: 정권의 순순한 이양과 안전,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선교부들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2. 한동 대학 방문 김명길 총장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만나다.

금번 한동대학 방문해서 김명길 총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에티오피아 글로벌 대학을 세우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방문해 실질적으로 학교 시작을 위해 협의하였습니다. 학교 커리큘럼과 교수 파견 등 자세한 의논했고 에티오피아의 현 국회의원이 아열대 메게리 장에우의 국제 법률대학원 입학결정 해주었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협의하고 동아리 팀에 들어가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 선교 상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한동대학과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장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팀 모집을 위해, 본관 건축 15만불 후원을 위해

3. 첫 번째 목회자 사진전 지난 2월에 총신 신대원 81회 동창 목사님들이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선교지 탐방하면서 찍은 사진과 목회자들이 찍은 출판된 사진들을 발표해 목회자가 바라본 세상 모퉁이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목회자 사진전은 첫 번째 에티오피아에 한동대학과 학교세우는 프로젝트(Ethiopia_Korea Global University)로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신미식 작가님 도와주셔서 코디네이터로 직접작품 찬조출품과 전체 사진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한 사진 중 원하는 분들에게 프린트해서 판매하고 포스터와 원서세트도 만들어 판매해서 학교 기금으로 시작하려고합니다. 이에 말씀으로 사역해주신 고 옥한울 목사님의 또 다른 사진작품을 알리고 이의 모든 기금은 아프리카에 대학세우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 목회자: 김명호 목사(국제제자훈련원), 고 옥한울 목사(사랑의교회) 홍기영 목사(분당장초), 진영화(안산부곡), 이억희(안양중앙), 서혜은(잠실양문원로), 엄영수 목사, 이광성 목사, 김수걸 목사, 김영승 목사, 배경락(서북교회), 차종율(David Cha, 새순교회), 특별출품: 신미식 작가 기도에 감사드리며 박종국 선교사 그림 한국 연락처 010 5841 8801

Worldwide Church Announcement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가정사역 칼럼



미리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라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연인 사이에 '체감의 법칙'이란 처음엔 손만 잡지만 손잡으면 입을 맞추고 싶고 차츰 진한 포옹이나 페팅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성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각 단계는 일단 접어들면 멈추기 힘들고, 애써 멈출 경우에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또 한때는 흥분과 만족을 주던 행위가 더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육체적인 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서로 사귀기 때에는 스킨십의 한계를 미리 정해 놓자. 이렇게 제안해보자. "___ 씨,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___ 범위 안에서 사랑해 주십시오." "___ 씨,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___ 범위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성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절제가 어렵고, 남자가 절제가 어려워지면 여자 역시 거부하기 힘들게 된다. 많은 믿음의 청년들도 너무 쉽게 육체적인 관계(성 관계)를 허용한 후, 애정이 식거나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느라 헤어지게 되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경우, 자매들도 처음에는 키스 정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키스나 진한 스킨십으로 애정을 표현하다가 다음 단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사랑 표현을 키스나 진한 스킨십으로 하면 유혹에

성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나친 스킨십 요구에 응대하려 하거나 무안을 주기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자매들은 이성교제, 결혼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형제들은 여러 성취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리고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아도(비록 처음에는 사랑하는 듯 생각했지만) 스킨십뿐만 아니라 성교까지 가려 한다는 사실을 자매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남성의 심리는 사귀는 여성의 몸을 충동적으로 탐하면서 막상 여성이 몸을 허락할 경우에는 '과거가 있는 여자가 아닐까?' '믿을 수 없는 여자 같아!' '여자가 너무 해프면 안 되는데'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성이 먼저 성 관계를 요구했다면 몸을 허락한 여성을 회피하거나 싫어하거나 애뜻한 마음을 갖지 못하거나 한다.

물론 관계를 맺은 여성을 책임지려 하는 남성도 있다. 그러나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이 남자는 책임지는 남자겠지?'라며 도박하는 마음으로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한계를 정하고 분명하게 'NO!'를 지키라

남성들은 음담패설을 듣거나 비디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적 자극을 받는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자매들이 'NO!'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훈련이 필요

여자보다 충동적인 남자특성 이해하고 절제해야 거절은 분명하게...자신의 의사 확실하게 밝혀야

빠지기 쉽다. 그러다가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

청춘 남녀 사이에는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했다. 자신이 모든 유혹에 강하다고 자신하는가? 이미 체감의 법칙을 경험하고 그 회한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성은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고 확인하려 한다.

아무리 사랑해서 했던 행동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동물적인 욕정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랑의 맹세가 굳어도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기로 하고 성 관계까지 가졌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완강하게 반대하여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약혼 후 합의하여 관계를 가졌지만 불신감과 죄책감 때문에 둘 사이가 급속히 멀어지고 급기야 파혼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결혼이 확정되어도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는 절제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여

하다. 형제는 처음에는 좌절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도 있게 행하는 모습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성으로 존중하게 된다.

여성도 남성이 거절감을 느낄까봐 싫어하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남성들은 여성들이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내숭을 떠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YES'와 'NO'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여성들은 어른들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NO'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지킬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한다. 단호하게 '안 돼요'라고 말하라.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난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제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싫다고 하는데 자주 강요하니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러면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두 사람의 만남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거룩하게 만나도록 애써야 한다. 거룩한 만남을 위해 한계를 정하고 분명하게 'NO!'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만남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지혜가 주는 유익 (잠2:10-22) 찬98장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얻을 때 찾아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 영혼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10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한대로 잠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주로 인정돼 모든 일을 평정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악인의 유혹에서 벗어

나게 합니다. 11-15절에는 악인의 패역에서의 구원을 16-19절에는 음녀의 유혹에 서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적극적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셋째, 의의 길로 계속 가게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신자에게 물려오는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은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 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보호는 물론,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화 복의 원리 (잠3:1-6) 찬28장

잠언은 장수, 평강, 명예 그리고 인도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1-2).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과 명령의 형태로 된 것은 우리가 지키기에 간편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자와 진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명예를 얻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무엇인가? 사랑과 참으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

다. 성경을 그대로 품고 사랑하고 따르면 그의 삶에는 이런 사랑을 맛보고 진실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법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아는 항해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와 인도를 받을 때 험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수 견고한 믿음 (잠3:21-26) 찬343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를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충만한 생명, 형통의 역사(25),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얻습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일보다 다른 것에 힘을 더 소모하는 사람이 많은 때에 여호와 경외를 사모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둘째, 믿음을 파수하기위하여 무엇해야 합니까? 회

개와 기도회 힘써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써야합니다.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한 야고보와 환도뼈가 위골되기 까지 기도한 아람처럼 많은 수고를 드러야합니다. 엉뚱한 일에 힘을 쏟는 이 시대에 가장 값진 경외신앙에 헌신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비전을 품고 살아갑시다.

목 관계의 정도 (잠3:27-35) 찬278장

이웃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째, 악한 자에 대해 가르치기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가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옆에서 언연히 살거든 모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27-31). 악한 자에 대한 긍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약1:27). 둘째, 악인에 대해 다루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거나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행동을 하나님께 말하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의인과 악인에 대해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나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의인은 은혜를 받지만 악인은 비웃음을 당한다고 했으며 의인은 영광의 기쁨을 받지만 악인은 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잠1:7-19).

금 지혜를 사랑하라 (잠4:1-9) 찬499장

지혜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째, 어떻게 지혜와의 관계를 가질까요? 본문의 지혜, 훈계, 명철이란 말은 각각 지혜의 특성을 보인 용어들입니다. 네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들어야하며(1, 5, 7), 마음에 품고 잘 지켜야하며, 사랑하고(6) 높여야하며(8).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리킨 것입니다. 둘째,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 살아나고(4) 보호

를 받으며(6) 존귀하게 됩니다(9). 이 복을 내 것으로 삼기위하여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합니다. 잠언에서 반복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복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가 내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의 욕이란 것입니다. 성경을 좇음으로서만 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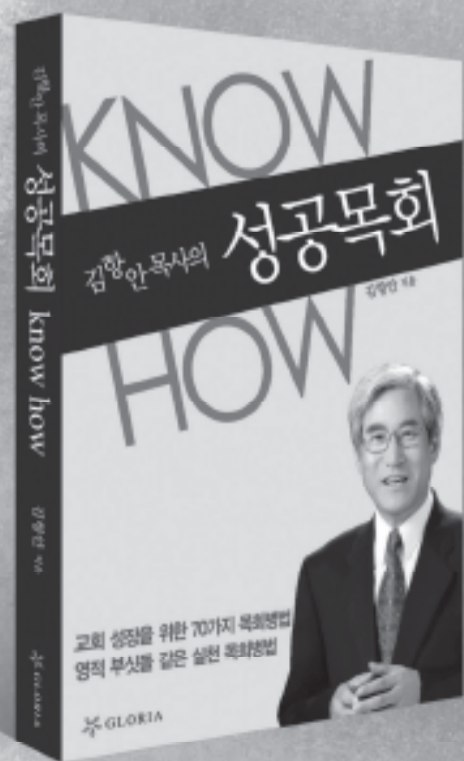
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잠4:10-19) 찬89장

본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첫째, 의인은 돌은 해처럼 빛납니다(10-13). 의인의 길이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된 삶을 가리키며 돌은 해와 낮의 광명처럼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장래의 밝음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의인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된 삶을 힘써 지키는데 있습니다. 둘째, 악인의 길은 어둠에서 살아갑니다(14-17).

악인의 길은 사특한 자의 길입니다. 악행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도의 술을 마시며 불의와 연합된 삶을 힘씁니다. 19절이 보이대로 "어두움" 때문에 넘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기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어두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낮의 햇빛처럼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김항안 저음 384쪽 신국판 정가 12,000원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신타와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미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김항안 저음 390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도대회'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항안 목사 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회 교육대학, 기쁨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브리검 신학대학원, 연원대학, 배틀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중희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갑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회복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순사와 교회성장', '대포기도랜드',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헌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명교육법', '말씀', '1807-0202 복음적인 예배의 설교를 위하여', '대박기 드를 위한 365일 기도문, 위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선교사와의 만남

(4) 지용주 목사 (보아즈프로젝트 대표)

미주지역 난민들을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보아즈프로젝트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해 그들의 가족과 민족이 하나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라큐스한인교회를 담임하며 보아즈프로젝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지용주 목사. 그는 미주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야말로 준비된 선교사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열매가 더 맺힐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용주 목사는 미국에 연간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입국하고 있으며 그들은 대부분 복음이 전해지지 힘든 나라에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용주 목사

고 있으며 힌두교도들이었던 두 명의 난민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세례를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주지역에 난민센터가 있는데 특히 대도시엔 난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가장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LA이며, 뉴욕, 산호세 등에도 많다. LA의 경우 연간 12,000명에서 15,000명가량 유입이 되고 있다. 시라큐스는 중소도시인데 연간 700명의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난민사역의 황금어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지 목사는 이러한 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한인들이 적극이라고 말했다. 특히 1세대인 경우 영어가 능숙치 못한 것이 난민들에게 동질감을 갖게 한다며 그들이 한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에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 한인1세대의 역할이 중요하

21개국 망명자들에 IT와 컴퓨터기술 가르쳐 영어미숙 1세대들에게 동질감 가져 접근 용이

복음이 편지 모르는 약속되지 않은 사람들(unengaged people)인데 그들을 복음으로 약속된 사람들(engaged people)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팀을 만들어 현지로 떠납니다. 장기 혹은 단기기로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주변에 있는 약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데 말이죠. 즉 우리 뒤뜰이 바로 미션필드가 형성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즈 프로젝트는 이방어인인 루이 예루살렘에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왔지만 보아즈를 만나게 된 것 처럼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보아즈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착안한 사역이다. 보아즈는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현재 보아즈프로젝트에 21개 나라가 연결돼있다. 대부분 시라큐스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며 그중 15개 국가가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않은 10/14원도수와 4/14 원도수가 만나는 지역의 국가이며 그곳

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 온 난민들은 대부분 정치적, 종교적 망명자들이다. 미얀마 등 불교가 강성한 국가, 힌두교가 강성한 네팔, 부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며 버팔로의 경우 이란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무더기로 넘어온 민족들이다.

지 목사는 이들 난민들은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난민촌 내에 마련된 거주공간에 17명이 모여 산다고 밝혔다. 그들은 미국정부에서 3개월분의 생활비를 제공받고 살고 있으며 정부의 주선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공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아즈 프로젝트에서는 그들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IT와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컴퓨터기술을 익힌 난민들은 공장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것에서 모델과 호텔의 레지스터 등 오피스 잡 등으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민들은 컴퓨터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난민촌으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컴퓨터기술을 가르칩니다. 컴퓨터를 다루려면 타이핑이 능숙해야 하는데 성경을 타이핑하게 해서 숙달되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

지고 한 학기(10주)동안 컴퓨터 기술을 연마하게 한 후 프리젠테이션을 시키게 했으며 그 결과 그들에게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 하나는 소망이 없었는데(Hopeless) 소망(Hope)을 갖게 됐으며 두 번째는 사랑을 몰랐는데(Loveless) 사랑(Love)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보아즈프로젝트를 통해 맺은 열매들로는 중국 천안문 소요에 관련된 자가 망명을 왔는데 그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한국말도 하지 못한 오직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자였다. 그가 지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중인 시라큐스한인교회에 나오게 되고 보아즈프로젝트의 최대의 열매가 됐다고 설명했다.

“마침 저희교회에 중문과를 나와 중국어통역이 가능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통해 그가 1년간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8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1년 후 중국인 신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3년간 신학교육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저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 뉴욕 플러싱에서 중국인교회 개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어느 자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을 받은 후 시라큐스대학교에 입학해 어카운트를 전공하

고 귀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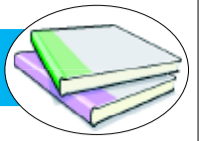
해마다 여름철에 1주일간 VBS(여름성경학교)를 열게 되는데 난민촌에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인다. 그들 중에는 1주일동안 VBS를 통해 50%정도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영접한 아이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며 이들을 초청해 식사대접 등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한다.

지용주 목사는 시라큐스한인교회가 속한 PCUSA교단 내의 Compassion Justice Grant 제도를 통해 그랜트를 받아 뉴욕 주에서 마틴루터 킹 인권상을 수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보아즈프로젝트와 같이 난민들을 위한 사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평생 한번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갈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이 난민사역을 통해 우리 이웃이 돼버린 난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아즈프로젝트의 대표인 지용주 목사의 연락처는 (315)474-8346, workman4yeshua@gmail.com (박준호 기자)

책 소개



“천국시민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

저자 강영창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장로신학대학교 부학장과 서노회장을 역임한 강영창 목사가 ‘천국시민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도서출판 카이로스, 535쪽)를 펴냈다. 본서에 대해 저자는 신학대학에서 산상교훈을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로 강의했던 교재를 기초로 해 설교원고와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다룰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쳤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서기관처럼 외치게 되니 죄책감과 무능함을 숨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며 천국시민으로서의 생활을 다짐하고 반석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한다고 다짐하곤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회심과 중생의 체험, 성령의 내재하심을 전제로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고 미국에 오면 미국 시민의

천국시민으로서 삶 가르치는 산상설교 정리

권리와 함께 미국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자 강 목사는 이 책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를 보다 충실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명령하는 바대로 천국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실천하며 반석위에 집을 짓는 참 제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본서는 제 1장 ‘산상설교의 안내’, 제 2장 ‘천국시민의 생활 원리’, 제 3장 ‘천국시민의 생활 내용’, 제 4장 ‘천국시민이 경계할 것’, 제 5장 ‘산상설교의 반응’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산상설교의 이해와 전사, 비평, 구조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까지 게재 되어 있다. 또한 2장에서는 팔복의 서론과 천국시민의 성품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이외에도 천국시민으로서의 자선, 기도, 금식, 물질 등에 관한 바른 생활 지표를 잘 조명하고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수록되었으며 산상수훈의 올바른 교훈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다.

▲저자 연락처: (714)526-8483

(이성자 기자)

창립 32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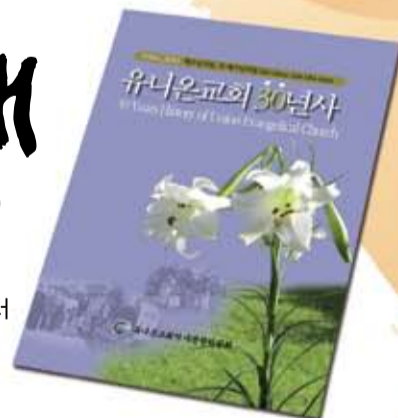
유니온교회 30년사 출판감사예배

Union Evangelical Church 3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Worship

“성삼위 하나님께서 유니온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게 하고, 특히 유니온교회 장래를 이을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유산을 전달함을 목적으로 편집과 출판을 진행하려 합니다.” 30년사 편집계획의 최대 원칙 중에서

남가주 지역에서 함께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교회, 모든 동역자분들과 유니온의 32년 역사 속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유니온가족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2012년 9월 30일(주일) 오후 4:00, 유니온교회 예배센터



창립기념주일 홈커밍데이 2012/9/30(주) 1부예배/오전8:00 3부예배/오전11:30

유니온 30년사 출판감사예배 2012/9/30(주) 오후 4:00 예배센터

유니온교회 출신 사역자 초청 특별금요집회 2012/9/28(금) 오후 8:00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2012/10/5(금) 오후 8:00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012/10/12(금) 오후 8:00 전길성 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담임목사 문병용 창립원로목사 이정근 30년사편집위원장 김주영

시무장로 김주영 강경석 권영태 변국현 유상열 이동기 이하우 정동근 원로장로 김규남 김영준 백문철 이성우 영예장로 김강박 김병삼 원태연 이기재 배궁조 부목사 권순광 임병희 조우주 유원선 홍일현 전도사 정한욱 이현노 이사야 Sam Roberson

영동목사 차성준

www.unionch.org 주소 |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91791 전화 | +1_626_858_8300~2 팩스 | +1_626_858_8303

미주성결교회

유니온교회

Union Evangelical Church